

내년부터 교원업적평가 기준 강화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평가 반영 ... 공정성·신뢰성 우려

이번 학기부터 교원업적평가 제 연구업적 부분의 기준이 엄격해지는 한편, 내년부터는 교육부문 역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화안은 △신입생 전담지도 항목이 추가되는 등 학문적인 지도기준이 강화되고 △온라인 강의 평가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연구업적 위주의 평가로 교수들이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수업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사지원실은 오는 10월 까지 온라인 강의평가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사지원실은 그동안 학생들이 형

식적으로 온라인 강의평가를 해 온 점을 감안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교원업적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업적 부문에서 평가대상 학술지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 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국내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등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교원업적평가제 기준 강화는 교수들의 경쟁력 향상 이외에도 2002년 시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봉제 실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화여대의 경우 2000학년도 2학기 교원실적평가를 강화한 결과 재직교수 승진·승급률이 57.6%로 나타났다. 이는 99년 이전 대개 80%이상의 승진률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이화여대는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이 되고 징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이 가능했던 것을 감안하면서 탈피해 연구실적의 질을 집중 심사했다.

고려대 역시 2000학년도 1학기부터 교수업적평가를 대폭 강화한 결과 장년보장임용심사에서 23.5%의 교수들이 승진에 탈락했으며, 경희대는 업적평가를 강화해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2배가량 늘렸다.

그러나 교수회는 이번 교수업적평가 교육부 강화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은 "온라인 강의 평가 등 불확실한 평가들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전체 교수들이 평가제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교수회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업적평가제 연구·교육부문의 강화는 교수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평가기준 강화는 무의미할 것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생일축하(?)... 조선일보 81주년 기념, 친일행각의 사죄를 요구하며 조선일보를 밟고 있는 지식인들. 그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언론개혁에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 4면(사회)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지면안내

- ▶ 사립학교법 개정되어야 하는가 6, 7면
- ▶ 사립학교법 개정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고 개정운동 역시 활발히 진행되는 요즘 사립학교법의 역사, 찬반 입장, 국민운동 본부의 활동 등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 ▶ 언론개혁 앞당기는 각계의 노력 4면
- ▶ 금기를 깨는 도전정신, 노컷전 10면



새내기들에게 주는 가르침

윤 청 광 (블로그방송 고승열전 작가)

블로그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블로그우화는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 많은 블로그우화들 가운데 '이슈우화'나 '리튬텐느 우화'의 원형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별주부전'도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경'에 그 원형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본생경'에는 악어와 원숭이의 이야기도 엮여져 있는데 우리의 '별주부전'에서는 악어대신 자라가 되었고, 원숭이 대신 토끼로 바뀌었다. 악어와 원숭이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악어나 원숭이의 그림도 사진도 비디오표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어와 원숭이를 설명하려해도 불가능했으리라. 그래서 옛날 우리의 스님들이 '본생경'의 악어와 원숭이를 자라와 토끼로 대체했던 것이리라.

우리가 조금만 주의깊게 블로그의 우화들을 살펴보면 블로그의 우화야말로 블로그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문화의 보물창고이며,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말로 잘 번역되어 있는 '백유경(百緣經)' 가운데는 두 번 세 번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지혜와 경교가 함께 들어있다.

새봄, 새학기, 더더구나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있는 대학신입생들에게 '백유경'은 많은 가르침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백유경'에 담겨있는 '누각의 3층만 지으려는 부자의 이야기'나, '우유를 한꺼번에 짜려고 했던 농부 이야기'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더더구나 대학신입생들에게는 의미있는 가르침을 주게 될 것이다. 어느 어리석은 부자(富翁)가 목수에게 3층 누각을 짓게 했는데, 목수가 기초를 고르고 1층을 짓기 시작하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보는 1층, 2층은 필요 없고 3층 누각만 필요하니 3층만 속히 짓도록 하게"

사람은 누구나 화려한 3층 누각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기초를 다지고 1층을 짓고 2층을 짓는 일에는 소홀하기 쉽다. 대학신입생시절에는 특히 그렇다.

일산병원 상량식 거행 오는 20일 건립 현장

일산병원 상량식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교양시 일산구 건립현장에서 열린다.

송석구(철학) 총장을 비롯해 불교계 인사 대부분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병원의 건물의형 공사를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중인 일산병원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 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병원이 2002년 하반기 개원될 수 있도록 공사가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달이 지나도 ... 삼문고 교사 54명은 학교를 정상화하기위해 부패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이 시작될지 한달이 지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관련기사 6·7면(기획)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축구부 전국 대회 출전 16일 송실대와 첫 경기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오는 16일부터 제49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 출전한다.

대학팀과 실업팀, 프로2군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총 48팀이 12개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른 후 각 조 상위 2개팀이 본선에 올라 토너먼트를 벌인다.

송실대, 전주대, 실업팀 윤부루와 같은 조에 편성된 본교는 오는 16일 광명시 사회복지회관 운동장에서 송실대와 첫 경기를 가진다.

사학법 개정축구 기자회견 개최

교육발전 위한 중요 과제 제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일 삼문고·덕성여대·서일대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축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문고에 임시이사라 파견해 학교를 정상 운영할 것

△덕성여대 박민국 이사장의 복귀 승인을 취소할 것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 등을 제단과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운동 본부의 이금천 사무처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의 개혁과 더불어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심희기 교수 문제 장기화 조짐

총장·교수회장 면담가져 ... 심교수 강의 강행

심희기 교수의 책임용탈락과 관련해 지난 8일 송석구(철학) 총장과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의 면담이 서로간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나고, 지난 5일부터 심희기 교수가 책임용 탈락 전 배정됐던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심희기 교수의 책임용 탈락이 확정된 이후 교수회는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심교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성평가의 부당성과 절차상 심교수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심사과정을 공개할 것 △교수회가 임의한 가운데 재심사를 할 것 △법과대학장이 사임할 것 △교수 책임용 평가규정을 개정할 것을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심희기 교수 책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과대 교원인사평가위원장인 연기영 법과대 학장은 "심사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수회 성명서에 대해 연기영 학장은 "교수회 성명서는 임시총회를 거쳐 지 않은 대의원들의 의견"이라며 "성명서에 대해 전체 교수들의

추진·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과대 학생들은 오는 14일 학내대표를 선출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심교수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으로 교수회는 학교측에 심희기 교수의 책임용 심사 내용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한편,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심 교수의 재심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심희기 교수는 학교당국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등록금 납부연기 사실상 마무리

학자투 선포식 오는 14일 중앙도서관 앞 예정

재학생 등록금 납부율이 지난 9일 92%를 넘어섬에 따라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도4)가 벌여온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이 사실상 마감됐다.

지난달 19일부터 등록금 납부연기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단과대별로 각 가정에 발송했으나, 대부분의 편지가 고지서보다 늦

게 도착했으며, 일부 단과대는 발송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지난 2일부터 학교당국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지지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각 단과대 건물마다 인상반대 대자보를 붙이고 수거함을 마련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모집단위

광역화 반대 △등록금 인상 반대 △GDP대비 국가교육재정 6% 확보 등을 기치로 오는 1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원자주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본 사 사 령

◇ 임 정 기자

▲ 정윤미(인문과학대 2)

-이상 3월 12일자



지루하세요? 동대신문사로 오세요

발전기금 ARS 7000-119



- 모집인원 : 서울·경주 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휴학생 제외)
- 모집분야 : 취재·사진·만화·인터넷 기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분량)
- 원서마감 : 3월 21일(수) 오후 5시
- 선발방법 : 필기시험 (상식과 기사작성 등)과 면접
- 선발일시 : 3월 22일(목) 오후 6시
- 장 소 : 본사 회의실
- ※ 본사 기자에게는 개인 책상이 주어지고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교수교체 · 분반 빈번해 학생들 혼란

인기 전공과목 수강인원 편중 ... 교양과목 강사부족으로 수업차질

지난주에 실시된 수강신청 결정 기간 동안 담당 교수가 바뀐 강좌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 수강신청 실시 이후 전체 개설된 강좌와 총 50강좌 이상이 기존의 담당교수와 다르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대 신문방송학과와 한 학생은 "한 교수의 과목을 신청했는데 수업에 들어가 보니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었다"며 "담당 교수를 보고 선택한 과목이 담당자가 바뀌어 곤혹스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는 한 강좌에 100명 이상의 학생이 몰려 분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분반을 하면 같은 시간대 두 강좌 중 처음에 맡기로 했던 교수가 한 강좌를, 강사가 나머

지 한 강좌를 맡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기초 교수가 보직을 맡거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강의 책임시간이 줄어들어 강좌 담당자가 변경되기도 한다. 전공과목 담당자가 변경되 시간표를 조정했다는 경험대 한 학생은 "전공 강좌의 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전공담당 교수가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좌 담당자가 변경되는 현상은 교양과목에서 더욱 심각하다. 교양 강좌를 신청했다는 한 신입생은 "원래 예정된 강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수업이 2주간이나 휴강을 했다"며 "이후 2주 분량의 보강수업을 따로 들어가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인기·비인기 과목이 뚜렷이 구분돼 인기 교양 과목 강사의 경우 박사과정 3학기 이상을 수료한 적임자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 담당자 변경 이외에도 인기 학과 전공과목의 수강인원 편중 현상이 지난해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부제 실시 이후 갈수록 심해지는 인기학과 선택 편중 현상이 전공과목의 수강인원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인기학과인 △사회과학대 행정학 △공과대 전자공학 △정보산업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 등의 전공 강좌에 100명 이상되는 학생들이 몰려 많은 강좌가 분반을 실시했"이후 2주 분량의 보강수업을 따로 들어가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과목은 한 강좌당 10명 정도의 인원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대 전자공학과 한 학생은 "분반을 한 강좌도 좁은 강의실에서 60명 이상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공수업 환경이 중·고등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매 해 수강신청기간이 되면 담당 교수, 강의실, 분반 등의 문제로 학교 전체가 들쭉거린다. 특히 학생의 경우 3과목의 정정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아 폐강, 분반, 담당교수 교체 등의 문제로 한과목이라도 바뀌게 되면 시간표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내년에는 덜 혼란스러운 수강신청기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현중 기자
dizy20@dongguk.edu



대담...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는 지난 9일 본관 회의실에서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폐쇄와 관련해 환영수 사무처장을 포함한 '기증품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학습공간인 제1열람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1열람실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영수 사무처장은 "기증품의 분류 작업을 거쳐야 하는 6개월에서 1년동안 1열람실을 휴관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기증품을 이전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회전무대

도전!! %

O...어디야? 어디!
각 단과대 마다 배치된 등록금 납부 연기 지지성명서 수거함이 찬밥 신세라는데.
이유인즉, 수거함이 특별한 홍보 없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여있어 학생들이 수거함의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쳐 납부연기는 이미 물 건너 간 격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목표달성 동국! 등록률 100%의 신화에 도전한다"

그림의 떡

O...어학강좌 봄 특강은 있으나 마나?
봄 특강시간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데.
봄 학기 특강 시간이 수업시간과 겹쳐 학생들이 특강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고.
수업과 겹치는 학생들에게 봄 학기 특강은 그림의 떡이 아닐런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봄 학기 특강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강의?"

특별 이벤트

O...누가 더 높나?
상록원 식수에 컵들의 키재기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식수대 컵들로 학생들이 물을 마시는데 불편을 겪는다고.
제 때 치워지지 않은 컵 때문에 학생들은 물을 마실려면 뻔뻔한 컵 사이의 빈틈을 찾아 손을 내밀어야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2002년 월드컵 16강 기원 상록원 컵 16개 쌓기!"

결석기간

O...노느라 바쁘다?
바쁜 학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유인즉, 수강 신청 정정기간 동안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지 않는 것을 이용해 수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는 수업계획을 설명하는 첫강의의 중요성을 간과한 격이니.
이에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한 교수님 왈, "늦은 학생에게서 내 학생의 냄새가 난다?!"

도서관, IEL서비스 실시 전기·전자 학술지 검색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선학)은 전기, 전자, 전산관련 분야의 외국 학술지를 웹상에서 볼 수 있는 I.E.L.(IEEE/IE Electronic Library) 서비스를 실시한다.

I.E.L.의 구축으로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외국 학술지를 찾아보는 대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하며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98년부터 발간해 온 IEEE는 전세계 전기, 전자 관련 분야의 학술지를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IEEE의 학술정보를 매달 2만 5천 페이지이상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판매한다.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내일(13일)부터 접수

여학생실(실장=이영순·화학)은 21일부터 제 2기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를 실시한다.

사찰음식 연구가인 선재스님이 지도하는 이번 강좌는 오는 5월 30일까지 한달 가량 매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10만원으로 교수, 직원, 학생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내일(13일)부터 16일까지 계산관 여학생실에서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뒤늦게 신청해 강좌를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며 "정원이 30명임을 감안해 신청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새터감사로 학생기구 징계 총학·공대무기한 예산정지

2001학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부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학생회와 공과대에 예산정지 무기한의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3개 학생자치기구와 8개 단과대에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표>참조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일부터 3일간 진행한 이번 감사는 총 4개 학생자치기구와 11개 단과대를 대상으로 △예산 △조식 △사업 항목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새터 감사결과와 관련해 유승우(아시아지역4) 총대의원회의장은

<표> 새터 부정기 감사 결과

징계내용	단 위	시행세척 및 징계사유
주 의	이간감사총학생회	감사자료 제출이 늦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예수대	
	동아리연합회	23조 2항 - 감사자료 제출시한 초과
경 고	법과대	23조 1항, 2항 - 회의록 미제출, 감사자료 제출시한 초과
	경영대	23조 1항, 2항 - 영수증 누락, 감사자료 제출시한 초과
	생명자원과학대	감사자료 제출시한 초과
	사범대	23조 1항, 2항 - 영수증 누락, 정산서 미제출, 감사자료 제출시한 초과
예산정지 2주	문과대	23조 1항, 2항, 3항 - 영수증 누락, 정산서 미제출, 감사자료 제출시한 초과, 경심비 지출 초과
	공과대	23조 1항, 2항, 4항, 6항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진행 보궐선거·동아리 등록기간 결정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우·전기4, 이하 동연 비대위)는 지난 8일 연화관에서 임시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개최했다.

동아리 대표 63명 중 48명이 참석한 이번 전동대회는 △새터사업 평가 △보궐선거 관련보고 및 대책 △동아리 정기 등록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새터 평가와 관련해 창작음악 동아리 문계구름 회장 강태욱(불교2)군은 "첫날 중앙공연에서 공연시간이 30분이상 줄어들어 공연을 준비했던 동아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새터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동연 비대위는 각 동아리 대표자들이 제출한 동아리방 개보수, 신규등록 동아리방 마련 등의 요구안을 접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동아리 정기 등록기간 1차 마감은 오는 16일, 최종마감은 19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보궐선거를 시행할 것이 결정됨에 따라 동연 비대위는

오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30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일(13일) 개강법회 '새학기를...' 설법

2001학년도 1학기 개강법회가 내일(13일) 오후 4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개최된다.

역경원 원장인 율운 큰스님이 '새학기를 맞이해 동국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설법하는 이번 법회는 교수, 직원,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 안중철 법사는 "바쁜 현대인에게 한발 물러서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8차 생협 이사회 개최 생협직원 퇴직금 정산 결정

제28차 생협이사회가 지난 9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생협이사장 권한대행을 맡은 허전택(영어영문학) 부총장, 심익섭(행정학)교수회장, 김덕기(경영4)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0학년도 결산보고 및 확정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생협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생협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장학금 예산 편성 △생협 독립법인화를 위한 예산 재편성에 대해 결정했다.

“젊음과 지성을 선보일 아름다운 커플을 모십니다”

젊음과 지성을 선보이고 숨겨진 장기를 찾아내는 KBS 2TV '감성체널@21 동국대학교 편' 촬영이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

- 1. 촬영일시 : 2001. 3.22(목) 12:00~20:00
- 2. 촬영장소 : 대운동장(예산)과 체육관(본선)
- 3. 방송일시 : 2001. 3.28(수) KBS2 TV 19:00~19:50
- 4. 참가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선착순 50커플
- 5. 신청일시 : 2001. 3. 16(금) 17:00까지
- 6. 촬영전 회의 : 2001. 3.19(월) 예정, 접수후 통보

☆ 최고의 커플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접수 장소 : 학생처 학생복지실 (본관 3층)

※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260-3048)로 문의 요망

학 생 처 사 범 대

교육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 대상자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 실습기간 : 2001. 4. 2(월) ~ 4. 28(토) 4주간
- 실습비 : 일금 칠만원정(₩70,000) -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실습비 접수 기간
2001. 3. 21(수) ~ 3. 22(목) 16시까지
-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2001. 3. 30(금) 17:30 사범대 소강당(학림관)
- 교육실습 일시 및 명찰 교부
2001. 3. 30(금) 오리엔테이션 후
1) 사범대생 : 각 학과별 배부
2) 비사범대생 : 교학과에서 일괄 배부

ROTC후보생 군장학생 모집

학군단에서는 2002년도 ROTC후보생과 2001년도 군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패기 있고 용기있는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 1. 모집기간
ROTC후보생 : 5. 12(토)까지
군 장 학 생 : 4. 7(토)까지
- 2. 지원자격
ROTC후보생 : 2학년 재학생
군 장 학 생 : 1, 2학년 재학생 중 대학성적 C학점 이상자
- 3. 문의 : 2260-8537

제 112 학생 군사교육단

2000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 신청자격
①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② 취득학점이 급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 졸업기준학점 이상
③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 평점평균이 4.0이상 (F성적 포함)이 될 수 있는 자
④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
- 신청기간 : 2001. 3. 19(월) ~ 3. 21(수)
-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야간학생은 야간강좌 교학처)
- 제출서류
조기졸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사항
가. 여름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 자도 신청 가능.
나.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할수 없음.

교 무 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출범과 사회개혁

시민있는 시민운동, 연대회의로 출발

연대는 쉽지 않다. 차이 때문이다. 추구하는 목표 차이, 일하는 방식 차이, 활동 경험 차이, 역량 차이, 생각 차이, 실천 차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회의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다. 위기의식이다. IMF 3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정착과 사회개혁은 관료적 무사안일주의와 보수기득권층의 저항 속에서 좌초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압통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악화를 초래하여 국가경제를 파탄 일보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국차원의 연대조직

올해 2월말 출범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작년 총선연대 활동이후 시민사회의 발전과 역량의 확장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시민운동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여 왔다. 그 결과 지역과 계층 그리고 각 부문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토대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국차원의 연대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민단체 역량 결집기대

연대회의는 지역과 부문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 시민단체의 실질적 협의기구이다. 참가하는 개별단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존중하되 국가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전국적 역량과 시민참여의 힘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보자는 것이다.

첫째는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풀뿌리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추진이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과 같은 시민사회운동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모색, 그리고 개혁과제 자료그룹을 형성하여 시민사

회의 개혁을 위한 중장기적 의제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둘째, 지방자치 개혁운동 및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 대응방안 모색이다.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장 임명제, 구청장 임명제는 지방자치제를 퇴보시키는 반자치적이고 중앙통제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지방자치 관련법을 개혁하는데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2001년 지방선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정치·사회개혁사업 벌일 것

셋째, 정치제도개혁 사업이다. 비민주성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청원운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김 광 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예정이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이것이 연대회의의 문제의식이다. 그렇다고 연대회의가 해결사는 아니다. 단지 국민들의 염망을 따라 물꼬를 틀뿐이다.

연대회의의 성패는 국민들의 참여와 선택에 달려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가능성과 지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대졸자 취업난과 대학의 현실

취업대란 야기하는 근본원인 해결해야

개최할 때마다 북새통을 이루는 취업 박람회장. 지난 6일 서울지역중소기업 201개 업체가 789명의 인턴사원을 뽑는 취업박람회에 7천여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대거 몰렸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졸자의 취업률은 1995년 60.9%에서 지난해 55.4%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취업재수생이 35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올 대졸자 가운데 절반정도인 미취업자와 내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취업전선에 가세하게 되면 대졸 노동시장에 바야흐로 취업대란에 접어들게 된다.

본교 취업지원팀 한문우 팀장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취업자에 진학자, 입대자를 포함해 올해 2월 본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경제가 겪고 있는 대기업 연쇄 부도와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대졸 취업시장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경희대 취업정보실 이종구 교수는 "대졸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학력제한, 자격증 소지여부 등 개인능력에 따른 '차별적

실업'보다는 구조적인 시스템 때문에 매년 일정한 인원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구조적 실업'이 훨씬 크다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아탑이었던 대학이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취업강좌를 만든 것이다.

중앙대는 '직업 개발'이란 취업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해 △유망 직종 소개는 물론 △입사 원서 작성 방법과 △면접 요령 같은 실무적인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취업을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강사진도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인사 담당자로 구성했다.

이밖에도 홍익대와 경희대 등 전국 30여 개 대학으로 취업강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 수강인원이 예상인원을 훨씬 넘어 학교측이 저학년에게는 수강을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대학의 취업과목 설치에 대해 본교 흥운기 교수(철학)는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체계, 명확 분위기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눈앞의 과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 근시안적인 대안일 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30대 기업의 취업경쟁률이 74대 1을 기록했다. 아직도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대기업만 고집하다보니 취업재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고용 경향은 토익 고득점과 컴퓨터 자격증 등 다양한 개인능력을 요구하며 대부분 인턴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졸자들에게는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낡은 사고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개인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졸자의 일정 인력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고용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취업경쟁에서 승리하는 처세술을 가르치기 보다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사설

사립학교법 개정 시급

지난달 개혁성향의 여야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현 사립학교법으로는 재단의 자율경영과 파행적인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재산화 등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교원임면권" 문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회의 절반을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총담해 이사장의 독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립학교는 비록 재단이사장에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엄연히 사회의 공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사유화가 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듯 하다.

지난 99년 교육관련 3개 법안 개악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지난 4·13총선 때 시민단체로부터 낙선운동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에 발목을 잡는 인사들 또한 다음선거에서 낙선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사립학교법'도 법이니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모든 사립학교가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일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경주캠 신입생에게 바란다

지난주 각 단과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끝나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새학기 수업준비로 바쁘게 분주해졌다. 특히 신입생들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지금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모습은 취업을 위해 거쳐가야만 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녹야원에서 술 한잔에 밤을 지새며 토론하거나, 동아리 회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줄을 걱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신 토론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 혹은 체험을 즐기며 동아리 활동이 아닌 인터넷 모임에 참여한다.

이 같은 현상에는 모집단위 광역화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 예전의 돈독했던 선후배 관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점차 개인적 측면의 대학생활만을 중요시하게 된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의 모습을 헤쳐갈 수 있는 '동국인'이 되도록 신입생에게 한마디 당부하고자 한다.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새로운 무한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게 마련이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생활을 추구한다면 자신감을 만들 수 있고 그를 통해 대학생으로서 대학만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새내기들은 동국의 미래가 바로 자기의 삶 속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기차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열어가길 바란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 주간 백승석 편집국장 박삼관 편집장 김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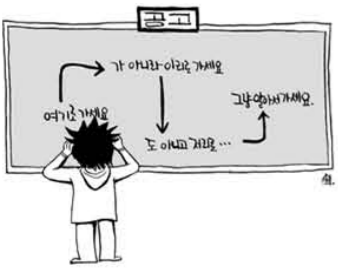
2001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선발 1. 파견기간 : 2001. 9. ~ 2002. 8. (1년) 2. 해당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3. 파견조건 가. 본교측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 유지해야 하며,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6%(미국 미시간주립대학 파견 학생의 경우는 72%)를 장학금으로 지급(감면)함.

가족장학금 신청 1. 신청대상 : 형제자매 중 본교 학부재학생이 있는 신입생 2. 신청기간 : 2001.3.5(월) ~ 3.16(금) 3. 신청장소 : 학생복지실 4. 장학금액 : 입학금 전액(538,000원) 5. 제출서류 가. 가족장학금 신청서(별첨) 나.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6. 장학금은 학생의 계좌번호로 입금처리됨.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은 대학생 위한 KBUF 불교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대학생 여러분을 공개강좌에 초대합니다! 1. 강좌내용 : 불교입문 - 불교란 무엇인가론 2. 참 가 자 : 불교에 관심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3. 일 정 : 3월 22일(목) 오후 7시 4. 강의장소 : 종로1가 종각역 조계사 근처 강의실 5. 문 의 처 1) 불교아카데미 교학처 : 전화 02)732-0239, 739-0913 팩스 02)732-0240 2) 우편 : (110-170) 서울 종로구 경지동 45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약로

교수정정기간



"000교수님을 대신해 이 강의는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의 있는 학생은 수강정정 하세요"

개강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한다.

"000교수님께 듣기 위해 신청한 수업인데"

"그렇게, 우리 수강정정 해야하는 건가?"

강사초빙이 안되거나 교수들이 개인 사정상 뒤늦게 수업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교수가 바뀐 전공강좌만 50여개 이상.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에 입한 학생들은 담당교수가 바뀐다는 소리에 이내 힘이 빠지고 만다.

"그 과목 수강정정 했어?"

"아니 들을만한 과목이 없네. 그냥 들어야 하나봐"

수강정정을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들은 또 다시 곤혹스러워한다. 정정을 하려고 해도 웬만한 수업은 이미 정원이 다 찼거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학기부터 수강정정이 3과목으로 제한돼 시간표를 재편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갑자기 교수가 바뀌는 일은 학생들로부터 수강과목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한 강의에 적어도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다. 이에 따라 교수 한 명이 바뀌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수강정정기간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듣는다. 학교당국의 미흡한 학사행정으로 인해 원치않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불만족스럽지만 참아야 한다.

강사초빙 같은 기본적인 면화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학교당국의 역할이다. 학교당국은 강의편성때부터, 좀 더 신중을 기해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수업을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언론개혁 앞당기는 각계의 노력

개혁 바람은 계속된다!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참가자들이 신문을 찢으며 '조선일보는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470명이 조선일보 8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지난 5일 조선일보 창간 81주년을 맞아 철학마당 '트리나무'에서 조선일보 거부 3차 지식인 선언이 있었다. 이번 3차 지식인 선언은 100여명이 넘는 의료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이에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대표 김동민 교수(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언론개혁 움직임이 많은 지식인에게 전해진 결과"라며 지속적인 언론개혁운동을 다짐했다.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의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계도에 올랐다. 언론 개혁을 위한 노력은 죽벌언론의 대표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시민운동을 계기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내부 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신문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한 '신문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신문 시장의 과잉 경쟁이 신문사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날 언론노조는 '신문공동배달회사설립'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최문순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공동배달회사 설립은 신문시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지역장들의 요구이며, 언론사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공동배달회사설립을 위한 구체

적 방안으로 과도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전담회사를 설립하고, 택배(대한통운+우체국)의 유통망 활용을 제안했다.

신문사의 과도판매 경쟁으로 인한 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문고시는 도입되지 2년만인 지난 99년 1월에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신문고시는 과거의 신문고시를 대폭 보완·강화했다. 신문고시의 부활로 언론노조에서 문제삼은 △신문사가 지극에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과다 경쟁, 무가치 배포 등이 엄격히 규제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품제공 완전금지 △유가발행부수 공개 의무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주연 사무총장은 "우리가 내놓은 요구가 보완되고 제대로 실행된다면 언론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문고시 실행에 반대하는 죽벌언론과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언론개혁을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요구하고 나선 지금 죽벌언론과 일부 수구보수세력들은 세력 유지를 위해 언론개혁의 역효과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언론개혁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방송과 신문사이 신경전 팽배 언론개혁 위한 상호비판 필요

최근 펼쳐지고 있는 언론들의 감론을박은 겉으로는 방송의 적극적인 신문비평에 대한 죽벌언론의 방어로 보여지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후 한국방송공사(KBS)가 죽벌언론의 친일경력, 언론사주비리에 대한 내용을 방영했다. 이는 죽벌언론의 권위에 놀려 무조건 침묵해온 방송



공기업평가단, KBS 점점



MBC 편파보도 왜 이러나

방송사들이 잇따라 언론개혁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신문과 방송사간의 대결이 시작됐다.

이 언론개혁의 흐름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죽벌언론들은 즉각 KBS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국제언론인협회가 국내 방송사들이 정권에 유리하게 편파보도 한다는 지적을 하자 조선일보는 이를 '방송사 친정부 보도 시정 촉구'란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이에 뒤질세라 동아, 중앙일보도 연일 방송에 비난을 퍼부었다.

이같은 대결구도의 발단은 문화방송(MBC)의 '100분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개혁을 주제로 벌인 토론에서 △죽벌신문의 황포 △사주의 개입 △불투명한 신문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또한 조선일보사 스포츠지의 선정성 문제를 다뤄 죽벌신문과 불편한 관계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내진김에 방송이 신문비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조·중·동은 '방송이 언론탄압 도구나' '방송부터 언론개혁을' '공영방송이 언론길들이기에 앞장'이란 보도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방송과 신문의 상호비판으로 양자간 비리가 날이 밝히면 오랜시간 품어왔던 상처가 터지는 꼴이니 오히려 치우의 여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혀 없었던 방송의 신문비평 프로그램 도입과 신문의 방송비평 칼럼실설이 가져오는 매체간 상호비평의 정착은 결국 언론개혁이 앞당겨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한국여성 노동자 지위 'F'

직장에선 성차별에 노동착취, 가정에선 가사노동에 시달려

여성, 나라의 새기!

여성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본사 사회부는 갈 길이 먼 여성의 평등한 인권확보를 위해 3회에 걸친 기획을 다루고자 한다.

- 1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얼룩진 사회 현실
2 경제위기로 다시 불거진 여성 노동자 문제
3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등을 매긴다면 세계 몇 위일까? 질문의 답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다. 지난해 유엔개발계획자료 중 여성의 경제, 정치 참여에 관한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70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다. 종교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다.

이처럼 세계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아직 '낙제점'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김영신(34)씨가 다니던 은행에서 해고된 것은 지난 98년 4월이다. 경제위기 이후 금융부문 구조조정으로 2만여 명의 은행원이 퇴직했다. 그도 "땀에 땀에 대안자로 선정된 귀하게서 권고에 불응할 시에는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가 실시될 것"이라는 권고문을 받고 일터를 떠났다. 여성단체연합 왕인순

노동위원장은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은 우선적으로 퇴직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여성들의 대량퇴직은 청구업무의 공백을 불러왔고 은행은 퇴직자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김영신씨도 몇 개월 뒤 해고된 은행에서 다시 일하게 됐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는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대졸 사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 게다가 매년 재계약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받게 됐다.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지만 최근 금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의 70.5%를 차지한다.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었던 보원노동자, 학습지 교사들도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된다.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양희 위원장은 "임금체불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점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루종일 일터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린 여성 노동자들이 집에 가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사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할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연구소 정미숙 연구원은 "그동안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가사 노동을 둘러싼 책임의 배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되는 길도 험난하다. 경제 위기로 좁아진 취업 문이 여대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인 것이다. 더구나 "신체와 용모까지 합격점을 받아야 여대생이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이화여대 이조혜진 총학생회장의 지적처럼 여대생들은 구직 과정에서 이중의 벽을 넘어야 한다.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은행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한 나라는 부패가 감소하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성적 평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면 경제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 인권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이같은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교수와의 만남

문정희

세상밖으로 나온 기생문학
굽이굽이 펴리라



- △ 전남 보성 출생
- △ 본교 국문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 △ 서울여대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취득
- △ 1989년 '월간 문학' 신인상 당선
- △ 현대문학상, 소월시 문학상 수상
- △ 1995년 미국 아이오와대 국제창작 워크샵 수료
- △ 현재 본교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
- △ 시집으로 '새떼', '떨레', '아누네의 새', '남자를 위하여'
- △ 수필집 '당당한 여자'

기생(妓生)은 본래 특별한 분야의 기예를 익힌 전문 기능을 가진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진평왕 때에 김유신이 천관이라는 기생을 사랑하다가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천관을 찾지 않으려 했는데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올 때 말이 습관대로 천관의 집에 이르자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 때 천관이 지었다는 '원사(怨詞)'는 현재 그 제목만 전해지고 있다. 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소설 '춘향전'에서 신관사또 앞에서 행해지는 기생 접고하는 장면 등은 우리가 기생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다.

'조선해어화사'를 쓴 이능화 선생은 기생을 "봉건 관료 사회의 천인 계급으로 작희(作戯)의 대상물이 되어왔지만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그들로 하여 예술과 문화발전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때는 의기가 나왔고, 일제 때는 항일기생이 있었으며, 특히 그들이 남긴 시작품은 우리 문학사에 크게 공헌했다"고 정리했다.

기생문학, 그 주제와 특성

황진이, 매창, 윤초, 홍랑, 강강술래, 매화, 송이 등으로 대표되는 기생시인들의 작품은 육봉이나 죽서처럼 소설시인의 시인들의 작품과 함께 그 문학성이 뛰어남을 볼 수 있다.

기생시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성을 향한 상사 일념의 시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한서린 주제에서부터 남성의 위치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재치와 재능 넘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것이 많다.

그것은 기생이라는 비극적인 신분에서 오는 현실의 불행이 시의 생성에 더할 수 없이 절실한 본질적 모티프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소실과 시기(詩妓)의 것에는 감정을 거지한 흔적이 없습니다. 만일 공자의 '사무사(惡無邪)'라는 시에 대한 평이 옳은 말씀이라면 이 점에서 아낙네들의 노래는 낙제이고 기생의 시는 급제외다"('조선여류한시선집 꽃다발' 권두사)라고 말한 김안서 선생의 지적을 보더라도 기생들의 시는 확실히 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사회처럼 유교적 질서와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녀의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는 남성문인이나 양가출신의 여성 시인이 나올 리 없지만 기생들은 조로의 위선도 없이 자신의 외로움과 사랑을 토로한 것이다. 남성은 풍류라는 이름으로 장난삼아 기생과 희

롱하였지만 기생은 삶, 그 자체로 슬퍼했고 시를 지어 만남과 이별의 절창을 남긴 것이다.

기생문학의 문학성이 뛰어난 이유

기생이라는 특수 계층의 여성들을 비축해 놓고 함께 놓고 나서 자신은 풍류를 아는 부류라고 위엄을 때려 조선시대의 남성들에게서 무슨 창조적인 사상과 예술의 힘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듯 남성 중심의 문화 구조를 가진 유교 사회에서 계층과 권력과 돈이라는 장치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 성취 동기가며 예너지인 아니마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조선의 남성들은(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떤 의미에서 신성한 창조 의 동인을 스스로 놓아버린 불구의 존재들이었다.

반면에 남성의 여가와 풍류를 돕기 위해 가무의 소양을 갖추고 그들과 대소 연회에서 화답하기 위해 문학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추었던 기생 시인들은 시인으로 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작품은 즉흥성을 띤 것이 대부분이고 남성에 대한 감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사랑하는 남성에 대한 상사의 노래가 많고 남성의 수작에 화답하는 노래 또한 많다. 그 가운데서도 재기를 발휘하는 시조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자기 확인을 하는 노래가 있음도 기생시의 한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성기욱, '기녀 시조의 감성 특성과 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 학술발표회, 1999.5.14)

비극적 여인의 삶과 축복받은 시인의 아이러니

독서와 강의는 장부의 일이나 부인이 이를 힘쓰면 폐해가 무궁하리라(성호사설)했던 시대, 또한 부녀자가 함부로 시사(詩詞)를 지어 외간에 퍼뜨림은 불가하다 했던 시대에 대부분의 여성은 문자와는 먼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기녀였기에 한문학을 배울 수 있었고, 한시 문학을 누리며 역을하고 답답한 심경을 문학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삶을 승화할 수 있었으니 기생이라는 인간으로서의 비극과 시인의 축복 속에 그녀들의 삶과 예술의 역설이 놓인다고 하겠다.

문정희 시인,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 인터뷰

'기생시집'을 낸 동기는, = 옛날엔 종합예술인으로 기생을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하여 '해어화(解語花)'라고 불렀다. 하지만 우리 문학사에서는 필자가 친한 기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생문학 연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기생문학의 집대성과 더불어 올바른 문학적 평가를 위해 책을 내게 됐다.

- 책을 내면서 어려웠던 점은, = 기생문학의 대부분이 즉흥적이고, 문서로 남기기도 어려운 것이 많아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그 작품이 과연 기생의 것인지, 중국고사나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는 않았는지, 또 시인의 생몰 연대 확인 등 작품을 검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 특별히 좋아하는 시조는, = 나는 매창의 '이화우(梨花雨) 흠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남'을 좋아한다. 눈보라가 심하게 부는 날 부안에 있는 매창 무덤을 찾아갔다가 시조 속의 이화우가 배꽃이 아니라, 눈발임을 알았다. 부안에는 배나무가 없고 눈이 많은 지역으로 그런 그녀의 상상력과 표현력에 다시금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 시집을 낸 지금의 기분은, = 그녀들의 비극적 인생역정이 시인으로서의 축복이라는 아이러니가 계속 가슴에 남는다. 이 땅, 이 시대에 시를 쓰는 여성작가로서 기생문학을 통해 여성으로, 작가로서 삶에 보다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젠 사회도 여성을 당당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국선학회 학술발표

한국선학회는 오는 17일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 10회 월례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도의국사 행적과 선, 언어, 선학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회는 조영록(사학) 교수와 부산대 김태완 강사가 발제하고, 좋은 선학을 위한 모색방안에 대해 서강대 박영재 교수와 홍주대 박영록 교수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진행은 차차서 BK21 연구원과 서울대 윤원철 교수가 맡는다.

춘계아카데미 학술특강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후원으로 오늘(12일)부터 8주 동안 서강대, 고려대, 건국대 등에서 2001년 춘계 대안 아카데미 학술특강이 열린다. 이번 특강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매주 한차례씩 총 8번에 걸쳐 진행되며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치와 사회운동(3월12일~4월30일, 월 7시, 서강대) △87년 이후 민주화과정 △3대개혁입법으로 본 한국민주주의의 현황 △한국의 지배력과 보수주의의 등. ▶정보화와 정치 그리고 사이버문화(3월13일~5월8일, 화 7시, 건국대) △사이버공간의 사회화 △인터넷과 시민운동 △인터넷 정치 등. ▶북한과 남북관계(3월14일~5월2일, 수 7시, 고려대) △탈냉전기의 북한의 대외정책 △부시정권의 대한반도정책, 통일운동·평화운동의 현재와 전망 등. ▶지역 및 국제정치(3월15일~5월10일, 목 7시, 성균관대) △동아시아론과 지역담론 △아시아의 민주화운동 △시민운동과 국제연대 등. ▶근대사상과 문화(3월17일~5월4일, 금 7시, 단국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신자유주의와 국가에 대항하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재구성 △이미지 시대의 문화철학 등.

광우병, 자연섭리 거슬러 부른 재앙

각종 유전자 조작 ... 퇴색된 생명윤리 · 인간본연의모습 되찾아야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하고 있는 광우병 파동은 쇠고기는 물론, 소를 원료로 한 각종 제품의 소비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EU)이 쇠고기를 북한에 지원한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우병의 의학적 공식명칭은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프리온이란 단백질이 변형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이 프리온은 열에 매우 강하고 강산, 강알칼리, 단백질 분해효소에도 반응하지 않아 아직 해명되지 않은 성질이 많다.

그러나 현재 양에서 발생하는 스크래피병이 동물사료를 통해 소에게 감염되고 이것이 정상 프리온을 기하급수적으로 변형시켜 광우병을 일으켰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결국 영국 정부는 축산 부흥을 위해 목초지가 없는 지역적 특성을 보완한다는 명목에 내세워 공장 사료로 소를 사육했다. 이것은 초식동물에게 동물의 뼈와 고기를 먹여 신중 질병을 탄생시킨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일(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 농촌지도사)씨는 "경제논리만 생각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과학적 행동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소에게만 발병될 줄 알았던 광우병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이란 이름으로 1986년 인간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들은 광우병 걸린 소와 비슷하게 신체마비와 언어 실조, 그리고 뇌에 스크린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해면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이 시점에서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김보욱(수의과학검역원 사무원)씨는 "아직까지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 후 뇌조직에 구멍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고 있는 광우병 파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인간이 저지른 과학적 자만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와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조문미(녹색소비자 시민연대 건강안전국 국장)씨는 "유전자 조작으로 새로운 체계가 속출하면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퇴색되고 있는 생명의 윤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천축으로 간 구법승

비단길, 그 길은 너무도 멀고 험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 길을 가고 또 왔다. 달마는 그 길을 넘어서 동쪽으로 왔고, 구법승은 그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향했다. 동쪽 끝 케임으로부터 천축에 이르는 그 길은 비단처럼 고운 길이 아니다. 그래도 그 길은 역사의 길이고 구법의 길이에겐 언제나 마음 속에 아련한 비단 같은 길이다.

7세기 전반부터 신라의 구법승들은 부처님의 나라 천축을 향해서 멀고도 험한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서해의 파도를 넘어 중국에 이르렀고, 타르리만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고, 파미르고원을 눈물로 넘었다.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산길을 기어서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계곡에 줄로 걸어서는 흔들다리 위를 온 몸을 줄에 매달고 건너기도 했으며 강도를 만나서 겨우 목숨만 구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은 천축의 여러 성지를 순례했으며, 나란타대학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당나라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신라 구법승에 관한 기록이 있다. 즉 아리아발마, 해업, 현태, 현각, 해륜 등이다.

현조는 두 번이나 천축을 여행했던 중국의 대표적인 구법승이다. 그의 1차 여행에는 신라의 현각이, 그리고 2차에는 신라의 해륜이 수행했다. 현각은 대가사를 참배하는 소원을 품고서 병을 얻어 입적했다. 나이 고작 40을 넘기고서, 현조의 시자로 동행했던 해륜은 줄곧 승승을 동행하면서 불교 유적을 두루 참배했다. 그리고는 승승이 돌아가신 신자사에서 10년을 살았다. 그는 범어를 잘 했고 구사도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서역으로 갔던 7세기의 신라 구법승 중에서 현태만이 당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는 두 차례나 인도를 여행했다.

해업과 아리아발마는 나란타사에 유학했고, 끝내 그 절에서 돌아왔다. 아리아발마는 이 절에서 머물면서 율과 논을 익히고 여러 불경을 필사하여 신라로 돌아오고자 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해업도 이 절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듣고 불서를 읽었다. 그도 역시 범어경론과 한역경론을 필사했다. 훗날 당나라의 의정은 이 절에서 불서를 조사하다가 '불치무 아래에서 신라승 해업이 필사한다'라고 적혀 있는 '양론'을 보았다고 한다. 이 무렵 나란타사는 불교화의 요람이었다. 만 명의 승려가 기거하면서 대승과 소승을 공부했고, 매일 백여에서 갖가지 강좌가 열렸으며, 불교경론 20부를 통달한 승려만 천 명이 넘었고, 학승들은 촌음을 아껴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던 신라의 두 승려는 진정 행복했을 것이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도 궁금한 일이지만 천축을 향해 서쪽으로 가고 또 갔던 구법승 또한 우리들의 화두다. 보리심은 큰 바위과도 같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다. 선재동자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칼산에 올라가 불 속으로 몸을 던지듯, 구도자는 보리심을 등불 삼아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넘는다.

지금도 우리는 꿈꾼다. 천축의 그 험한 길은,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의 길이 아니고 순례의 길도 아니다. 천축의 길은 우리들 구도의 길이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가고 또 가야할 우리들 구도의 여정이다. 구도자의 가슴 태우는 보리심, 그 보리심이 있기에 천축의 길은 비단처럼 아름답다. 그래도 대학은 진리의 전당, 우리는 오늘도 동양의 언덕을 오른다. 신라의 구법승이 비단길을 가듯 또 갔듯이.

역경원, '한글대장경' 완간

본교 역경원(원장=김성구)은 대장일람집 1, 2권을 발간함으로써 고려대장경의 번역본인 '한글대장경'을 완간했다. 65년부터 36년에 걸쳐 우리 나라 최초로 완성된 한글대장경은 총 31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난해하고 방대한 30만여 권의 고려대장경 전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이번 완간본인 대장일람집은 한글대장경 316권과 317권으로, 대장경에 포함된 여러 경들을 주제별로 분류한 경전목록집이다.

고수동정

▲원치선(전자공학) =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

사립학교법 개정되어야 하는가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 척결의 신호탄 · 교육정상화의 지름길



국가가 교육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사립학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교만 보더라도 전국대학의 약 83~4%를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운영은 공교육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립학교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사립학교법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직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 운영의 토대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지난 1963년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을 위해 제정된 이래 약 40여년 동안 28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수 임용 비리 문제를 비롯하여 부패 재단이 복귀하는 등 재단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

러나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0년 사립학교법을 개정 할 당시 교원임명권을 이사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1999년에는 임시이사의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사회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집중시켰다.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포함한 교육관련단체들은 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99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당시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나선운동을 벌이면서였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꾸준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야의 국회의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3일 설훈과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임명권을 총장에게 부여 △임원 취임 및 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당론으로 가져가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20여명의 개혁파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사학법인단체들이 '사학자율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다소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일 최근 부패 교장 선임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문고를 비롯하여 덕성여대, 서울대 정상화위원회와 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학 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재단의 비합리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아주대의 경우, 지난 9일 총장 재취임 부당성을 제기한 아주대 교수 4명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학생들을 양육하는 곳이 부정부패로 얼룩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부패사학을 척결하기 위해 각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신호탄으로 사학이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곳으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 찬반 논쟁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학교법인 이사들의 권한을 빼앗아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이양하면 민주화가 되는 것이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사립학교 관련법을 개정하지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은 현행학교 이사들의 권한을 박탈해 교사들, 교수들, 학

부모들의 단체에게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솔직하지 못한 나쁜 발상이다. 굳이 민주적 운영이 그렇게 좋다면 새로 사단법인이 가능하도록 설립 학교를 만들어 보기를 권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약 일천명으로 구성해 교사 전체회의와 학부모 전체회의가 서로 협의하여 사단법인 이사장, 이사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예산도 총회에서 의결하고 학교현장, 학칙, 교육과정운영, 교과과정, 교육자료선정, 교장임명, 교원직원임명과 징계를 민주적으로 하게 하면 가장 솔직한 민주적 사립학교가 될 것이다.

재단법인 내지 학교법인이라는 법의 약속을 믿게 해 막대한 재산을 출연한 이사들의 운영권을 빼앗아 사실상의 사단(社團)을 만드는 방식보다 그것이 더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이 아닐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권력은 교사와 학생들(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들)로부터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관찰하고 나서 재단법인 내지 학교법인을 사단화(社團化)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단법인을 제도로 만드려면 결과를 접어두고서라도 당장 돈은 누가 댈 것이

냐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민주적으로 하려면 권한과 함께 책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학부모들 약 1,000명이 회비를 거두어야 한다. 이런 회비를 안내겠다는 책임없는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회비를 거두지 못했으면 국가 더러 사단법인의 모든 경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있다. 결국 사립학교는 모두 사라지고 국

군중비판과 관료통제를 강화했지만 자유경쟁사회보다 더 게으르고 부패했다는 역사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

교육사회주의의 방식을 더욱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고등교육선택권을 박탈해 학군식(學群式) 학교배급을 하면서, 고등학교에는 학생선택권을 박탈해 학생배급을 받도록 한다. 또 학교내 피용자(被傭者)인 교사와 직원 및 학교배급소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법인 운영자인 이사직의 점령과 권한탈취를 하게 하고, 교육부 관료로 하여금 학교법인 이사들의 운영권을 제약하고 이사자격박탈권한을 강화해도, 지나가는 다음 세대는 더 게으르고 더 많이 부패한 교육붕괴의 현

장에서 게으르고 투쟁하는 것만 보고 자랄 것이다. 학교법인들이 공공학교 또는 다른 학교법인들보다 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더 많은 직장으로부터 선택과 평가를 받으려고 경쟁하는 교육현장이 훨씬 덜 게으르며 덜 부패할 것이다.

해결책은 학교법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경쟁이지 경쟁을 막아놓고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임 광 규 변호사

사학 개혁의 현장을 찾아서

상문고의 꽃샘추위

존립여부 불투명 ... 정상화 대책마련 시급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재단의 비리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상문고등학교(이하 상문고)가 그곳이다.

부패재단이 임명한 정방언 교장 반대와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문고는 어느 학교들과는 다른 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수업거부에 이어 학부모의 협의 하에 모두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할 뿐이어서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가득한 교실과 운동장도 등교거부로 텅 비어 있었다. 쓸쓸한 학교와는 대조적으로 교무실은 29일째(3월9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문고 정상화 대책위원회 교사들과 취재진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패재단의 복귀를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농성 이유를 밝히는 유상근(영어)교사. 그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이라며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문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일 상문고

에 학생들의 재배정, 특수지 학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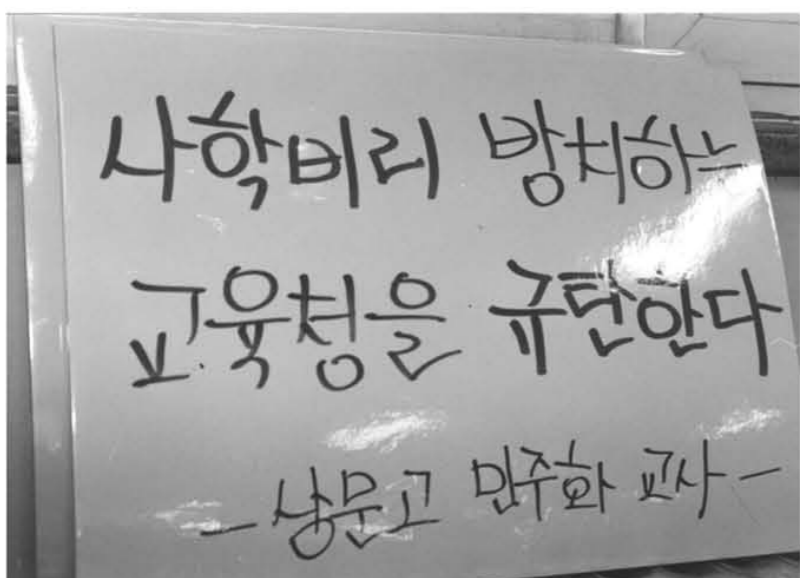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배정으로 학생들이 흩어질 경우 학교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문고 공동대책위원회 한상일(국어)교사는 "교육청의 제안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며 "부패재단의 퇴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없는 학교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연우 학생회장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결여된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조연우는 "이제 3학년인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난감하다"며 걱정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상문고 사태는 교육청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재단의 의도대로 폐교될지, 아니면 재단이 물러가고 학교가 정상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사학/윤태규 기자

2년 전에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될 전망은 밝지 않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일부 여당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막판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초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의 임명권을 학교장에 부여하고, 해임권 비리 분류 당사자가 다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그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교육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특히 정대철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학교에서 재단을 배제한 채 교직원과 학생 위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10%에 불과한 비리재단 때문에 선량한 나머지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정대철 의원은 11년전인 1990년에도 당시 평민당 소속 문공위원장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을 반대하는 정치가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사립학교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학교 재단법인은 육영이라는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재산에

바탕해서 설립된 법인격(法人格)이다. 즉,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면 그 재단은 설립자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의 공익(公益)이 되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결코 설립자의 사유물이 아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최대의 문제점은 모든 인사권과 재정이 재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재단에 부여되어 있는 반면 이를 통제·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 비리, 편입학 부정, 학교 공금의 횡령 및 회계 부정, 학교 재산의 사유화와 같은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많은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현행 사립학교법 체제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사학법인의 비리와 대학당국의 독단적인 학사 운영을 문제 삼았다가 많은 교수가 구속·파면 징계를 당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악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이 하루 속히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으로 개정되고 자체 통제장치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모순과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대학치와 대학 발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각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쳐죽도 포함하여 정수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로 제한하고, 전체 재단 이사회의 정도는 공익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만 된다면 특별 경쟁체제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지난 1999년에 개악된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즉, 금치산자 또한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아예 없어지고 만 것이다. 이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거나, 아니면 교육관계법 위반이나 기타 사유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부패 사학을 영원히 척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재단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교수회(또는 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화하여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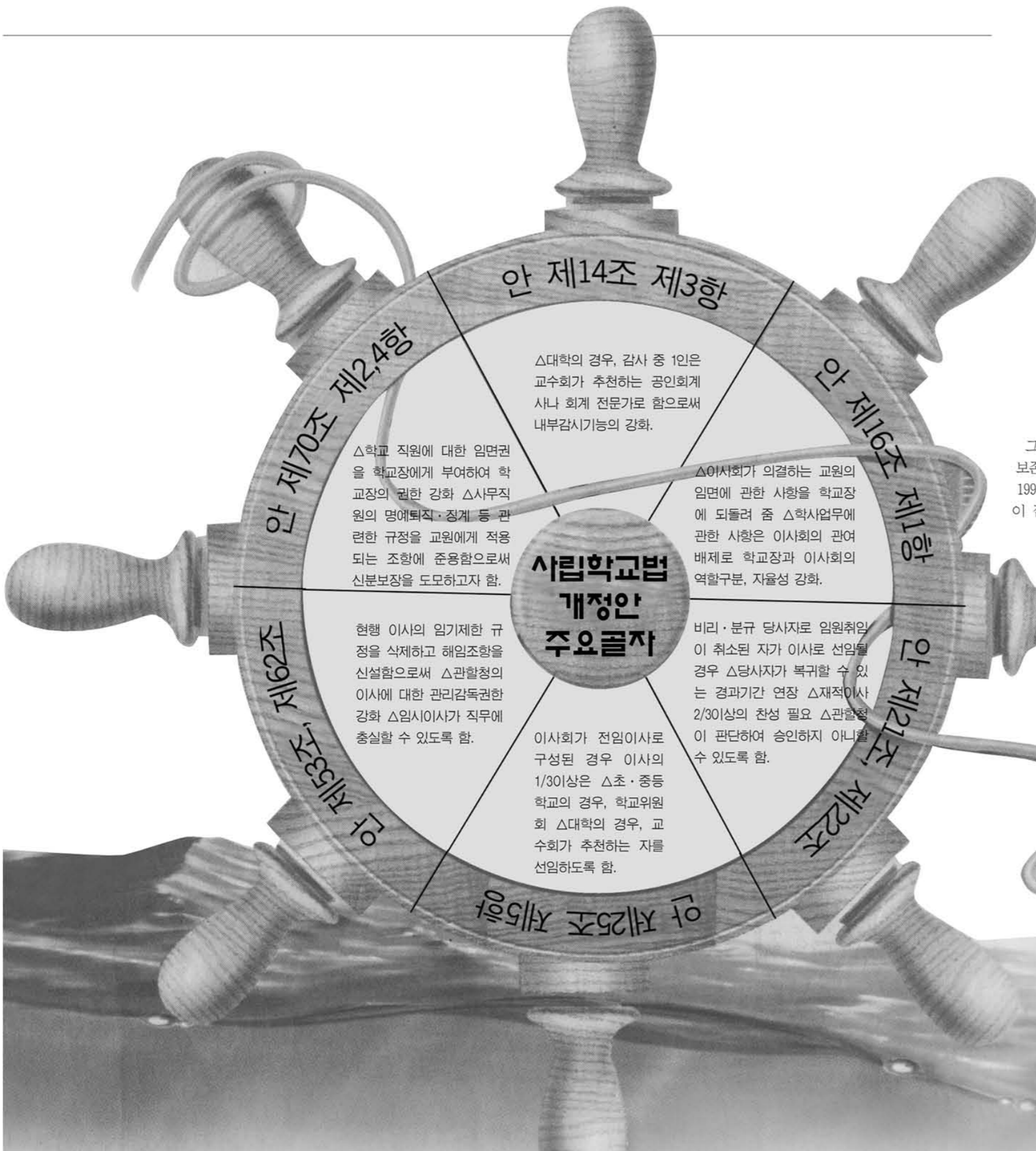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더 있지만,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이상의 내용은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하루 속히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대학의 자치와 대학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김태정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한국외대 교수

사립학교법 무엇이 쟁점인가

개정의 미그림들 역사



사립학교법은 1963년 6월 2일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수십년동안 반복된 개정을 통해 교원에 대한 처우나 재단의 역할에 대한 항목이 바뀌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육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재산을 은닉·보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0년과 1999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들 수 있다. 이사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도록 개정하면서 △예결산 편성권 △총장·교수·직원 임면권 △정관 규정 △이사회 소집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19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관계자의 대학기관장 임명제한 규정을 폐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 △학교 교장의 임명시 관할청의 승인을 보고제로 변경 △학교원의 임면권을 학교법인으로 귀속

△이사장의 친족과 혈족 참여비율을 1/3에서 2/5로 확대 함으로써 사학 재단이 인사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1999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관선이사 파견과 관련하여 2년 이내 1차에 한해 연임제 하도록 △관선이사 임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교원임용에 관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요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기획부 imperial@dongguk.edu



민주당 김경천 의원 서면 인터뷰



“교육정상화 토대 마련할 것”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운영방법 모색 해야

민주당 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경천 의원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90년 사립학교법 개악 후 상문고, 덕성여대 등 수많은 사학비리로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리당사자들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현재 재단이사회가 갖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명 및 징계권을 학내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게 하고 학교장이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 학교운영위원회가 예결산 및 학사운영에 대한 심의권을 갖도록 하고, 비리·분규당사자가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귀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 학교장에게 교원 인사권을 주는 것은 법인의 경영권을 빼앗

으러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학교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학사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법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투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교는 법인, 학생,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기관이고, 학사운영도 거의 교사(교수)와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교원임면권 등 주요 사항은 학내구성원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 현재 민주당내 최고위원들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대 이유는?
= 당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언론보도 이후 시일이 촉박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 자체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야당과 사학재단의 반대도 많을 것 같은데.
= 개정안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야당과 사학재단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관행을 문어문체, 학교교육이 발전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현재 학교교육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 아닌가. 사회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을 올바르게 개정해 교육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 당론 확정과 국회 처리과정에서 개정안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목소리가 높는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큰 줄기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다. 개정안의 교원임면권·학원위권한강화·감사제도강화 등의 본질적인 항목들은 수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당론확정과 법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지난 3일 공청회를 열고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수시로 최고위원과 접촉하는 등 당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이 개정안 방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 상정되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 사립학교법 개정 후, 미래의 민주적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분류를 막을 수 있는 사전예방책이 마련되게 된다. 현재 분규가 진행중인 학교들에 대해서는 사학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여야 교육위원들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합의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사학들을 위한 진흥법도 연구 중이다.

몰아치는 태풍보다 꾸준한 바람처럼 은 국민의 힘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기대

“깨끗한 학교,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일 상문고, 덕성여대, 서일대 정상화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패교장 선임문제, 교수 임용비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문고, 덕성여대, 서일대에 대한 정상화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목표로 발족한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관련단체를 비롯한 약 30여 사회·시민단체들의 연대로 이루어졌다.

국민운동본부의 이금천 사무처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무엇보다 교육발전과 사회 개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운동본부의 발족 의의를 밝혔다.

국민운동본부에서 추구하는 개정안은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1/2 이상을 교육,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사립교원의 임용제도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마다 지부들을 설립하여 지역중심으로 가두행진과 홍보활동을 하거나 국민들과 함께 부패사학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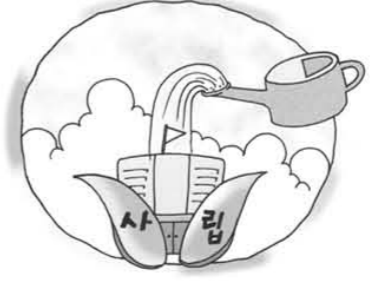
또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약 20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각 정당에 개정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88.2%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에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학법인이나 보수적인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시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재단이 학교를 세웠다고 해서 학교가 재단의 재산은 아니다”라며 “개정을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거나 낙선운동을 벌여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은 “재단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학교에 관한 일은 교수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수회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국민운동본부 활동에 동참할 뜻을 보였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이후, 어느 때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때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깨끗한 학교,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에 학생, 학부모, 교수와 시민단체 등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으로 되어 부패사학이 척결될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날을 기대해본다.



김현정 기자
telleme@dongguk.edu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소나기

황태연교수 발언 일파만파



△언론 플레이에 결국 무릎을 꿇은 황교수여 ~
△요즘 때가 어느 때데... 웬?
인민재판??
△눈치 안보고 내뱉은 한마디... 누스거리 쏘입니다. 다들 조심합시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개인적 인 발언에도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이 아닌 가?
△이 일을 두고 김위원장 왈 "답방 안가!!"
△책갈시비, 빨강? 그럼 반대는 파랑인가?
△황태연 교수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람... 내가 보기엔 오십보백보 같네.
△이제 색깔 따지지 그만 좀 합시다"
"정신차리고 나라와 국민을 좀 챙기시디"
△황교수와 김위원장을 대면하게 해주자!!
△보수언론! 수구세력! 인민재판 이제 그만!!
△보수언론, 수구세력, 정자의 공룡점...

셋다 인간되기 힘들다.
△수구보수적 발언 → "주적 개념"
△조금만 더 심사숙고 하시고 말씀하셔야지요.
△김정일은 국가의 원수로서 당연히 과거에 대한 잘못을 사과할 책임이 있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듯.
△과연 햇볕정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황교수 발언을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사과를 받아내기 이전에 적절한 절차가 필요 하다
△북침? 남침?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언론의 자유 없는 우리나라~
통일의 희망없는 우리나라~
△그럼 우리도 교과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건가?
△그들(?)은 전직 소설가가 아닐까.....!!
△스스로 무덤 지고!
△한글언론계의 자괴!
'오보' 내고 '오보' 하는 분위기~
△보수와 VS. 진보파
△언론!!! 너무 한다.
왜곡은 이제 그만~
△인민재판에 재미 들리니 마녀사냥이 되는군..
△참 시간도 많은 분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시간 없으면 정치나 잘하시죠.
△옳은 말 가지고 그러는 건 정곡을 찔렀기 때문?
△폭발언론의 왜곡이나 규탄해라. 황태연 교수의 발언을 왜 왜곡하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계속되는 많은 마녀사냥... 그 끝은 어디인가?
△언론의 힘이 정말 무섭군.
사람 하나 그냥 보내버리다니...

오늘의 열린글터

이영수 (불교대1)

불교대 수석합격자

소신있는 불교학자의 삶 꿈꿔

"불교를 접하게 된 건 인연인 것 같아요."
스무살. 그 나이 또래 친구들처럼 포프리스를 즐긴다는 이영수양. 하지만 주말마다 가까운 절에 가 108배를 올리고, 수시로 금강경을 읽는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많았던 이영수양은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라 절에만 가면 신기하게도 아픈게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스님들과 불당의 향배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그녀는 언양에 있는 석남사 일각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했다. 아마도 그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불교공부에 뜻을 두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영수양은 작년 입시에서 자기 적성을 고려한 대학진학이 아닌,

소위 말해 잘 나가는 학과인 아주대 경영학부를 선택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불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어요."
결국 재수를 결심한 그녀에게 부모님과 일각스님은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선무도를 연마하기 위해 감포 골굴사로 들어간 남동생은 또 그녀의 자국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영수양은 2001학년도 수능능력평가에서 석차백분율 상위 1.2%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본교 불교대에 입학했다.
"불교학 교수나 불교관련연구소 연구원이 돼서 경전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벌써부터 불교학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보다 깊이 있는 경전해석을 위해



mong2@dongguk.edu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새터기사 눈길 끌어

새터를 다녀온 새내기로서 새터인터뷰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호 신문기사 중 2면에 있는 새터 인터뷰에서 2박 3일 동안의 새터가 기억나 웃음 지을 수 있었다. 새터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새내기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많은 애정을 보여줬던 재학생의 인터뷰가 조금은 신선했다.
특히 지난해 새터사교로 부상을 입음에도 중앙 공연에 참가했다는 재학생의 인터뷰에서 적지 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의 질문중에서 '새터를 가게 된 동기'나 '새터에 대한 평가' 등 뻔한 질문이 두 개나 차지해 인터뷰 전체가 진부해 보였다.
분량의 한계때문에 새터의 분위기를 다 담아 낼 수는 없었지만 새내기였기에 누구 못지 않게 관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기사였다.

박혜진 (문과대1)



(제1312호 3월 5일자)

독창적 시각 필요

사회면에는 여성의 평등한 인권확보를 위한 기획기사가 실렸었다. 이 기사는 지난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독자로 하여금 여성인권 향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잡지, TV 그리고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투적인 연구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기사의 식상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대학신문이라는 특성을 살려 좀더 신선하고 독창적인 시도와 사고로 바라봄이 좋을 듯 싶다. 또 기획이라는 의도를 충분히 살려 읽고만 지나치는 기사가 아니라 더 나아가 인식전환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효진 (인문대 국문3)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u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소통의 단절 아쉬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의 홍수', '소통의 단절'이라는 두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부조화의 시대이다. 수많은 정보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이 정보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곳곳에 스미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서로간의 의사 소통이 부족한 '홍요 속의 빈곤'의 현실속에 살고 있다.
진정한 홍요란 먼저 '소통의 이음'이다.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필요한 것들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국가와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우리는 홍요로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가족들, 학교, 사회전반에선 '소통의 단절' 문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의 대화단절, 학내 등록금 문제, 대우사태, 의약분업, 정치인의 권력다툼 등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모두 소통되는 건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그들과 마음의 끈을 이어갈 때 우리는 마음의 소통을 통해

홍요로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학교내의 문제들도 우리들의 '관심'과 '소통의 이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진정한 우리'가 된다면 '홍요로운 대학생활'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학원들 사이의 '소통의 단절'을 깨야하는 때인 것 같다.
이성철 (사과대 행정2)

문제점 많은 통학버스

이번 학기부터 포항, 울산 등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인 탓이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배차시간은 너무 일방적이며 8시 40분에 도착하는 차량 1대 밖에 배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모든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찍 학교에 오기는 힘들다. 배차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린다면 학생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 수는 많은 반면 차량 수는 아직도 부족해 추운 아침에 오랜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뒷시분을 뒤편에서 기다리고선 인원이 너무 많아 못타는 경우가 생긴 적도 있었다. 또 1시간 이상을 만원 버스에서 서 있기란 여간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니다.
승차 할 수 있는 코스도 조금만 더 늘

린다면 이종으로 차비를 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면 요금할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박경희 (불문대 불동2)

안 지켜지는 학사일정

2001학년도 학사일정을 보면 개강은 엄연히 3월 2일로 되어있다.
2일 개강 날짜에 맞춰서 학교에 나왔지만 몇몇 친구들을 만난 것 이외에 학교에 간 것이 약간은 무의미했다.
개다가 타지역에서 어떻게 온 학생들도 수업을 못들은 채 대부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추운 날씨에 버스 타고 힘들게 학교에 왔건만 약간은 후회가 됐다.
하지만 5일부터도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매번 개강하는 주가 되면 어수선해져서 그 주 수업은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수업시간이 지연된다거나 출석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휴강되고 조교가 와서 일방적으로 휴강을 통보하는 식의 수업도 있었다.
물론 한 학기 수업진행 방향과 교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꼼꼼히 출석체크를 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계셨다.
매번 개강하는 주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는 수업들은 문제가 많다.

앞으로는 학사일정에 맞추어진 준비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지선 (인문대 영문3)

도서관 오해 바로잡기

지난 동대신문 제 1312호 최운곤(국어국문학 박사과정)학생의 기고글을 읽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로서 잘못 이해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12월에 3월 첫째주 토요일 대출실 휴관에 대해서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유는 방학중 근무시간 시작(9시 30분)과 학기 초 근무시간 시작(9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매 학기 초 두 차례에 걸쳐 항상 열람시간 변경 공고를 내고 있다.
단축근무도 부족해서 휴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은 단축근무를 폐지한 지가 벌써 수 년째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멀티미디어실 이용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개방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학술정보를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는 이의 없으며, 학교도 보다 나은 학습 분위기를 위해서 도서관 신관을 곧 착공하려 한다. 끝으로 학생 여러분의 도서관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일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계장)

삼행시 짓기 대회

- 1등 : 이미성(법2)
동- 동떨어진 애기라 생각했죠.
국-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이란저런 애기들.
대- 대학에 와서 느꼈죠, 이것들 모두 우리곁에 있는 이야기란 것을...
2등 : 원종근(공과대 전기공2)
동- 동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아!
우-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건 동우
탑- 탑에 계신 선배들이 있기 때 문인걸 기억하자.
3등 : 윤채민(이과대1)
동- 동족상잔은 이제 그만.
우- 우애와 신뢰를 연장으로 통일 을 성취하세.
탑- 탑을 만드는 석공의 마음으로...
주최 제33대 총대의원회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역교 01 입학 축하합니다
-역교 99 매력 男
△진우야, 힘내. 넌 맨날 차이기만 하나 입마! 파이팅!
△선정언니! 임용고시 합격 축하해요
-동물
△39기 학군단의 입관을 축하해요!
△동규오빠! R.O.T.C.입단을 축하해요!
△희경이 언니 결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쌍둥이들 다섯만 낳으세요.
△경은아 생일 축하해~
-디들들
△천규오빠, 도경오빠, 제 8대 북한학과 학생회 잘 이끌어 주시구요. 회장, 부회장 당선 되시길 축하드려요.
-pisk20
△인오오빠 제대&복학 축하해요~☆ 우리 같은 3학년! 놀이예요~
△한상범 교수님 민족문제 연구소장님 되신거 정말 X2 축하드려요!
△인화아!! 늦었지만 정국원뎡거 축하한다. 이번 후배 많이 받아라. 수환오빠♡성은이 커를 축하해요~!
-기관요원들
△지철오빠, 성규, 수환오빠. 01학번한테 인기 많으면서? 축하해!
△P형, 생일 축하드려요.

△현수야! 생일축하한다. 머리좀 잘라라.
△윤지예, 정상호 늦었지만 입학 축하해.
△박찬웅 교수님, 멋진 제자 만나신 거 축하드려요.
-멋진제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스키부름 이끌어 나갈 이윤석 주장님 1년동안 수고하세요. 태균이형도 수고 많았세요.
-임원진 일동
△동연 사회분과장님!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술 한잔해요.
-인선이 친구
△혜정아~ 수고해라. 힘들면 놀러 오고
-현정
열심히합시다
△동물 41기 집행부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나 13일 군대간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재대하면 더 좋은 학교가 되어있길 바란다.
-pkr
△다음주만 열심히 하면 1주일을 쉬게 되네요. 여러분 파이팅.
-hyun
△01학번 새내기들 수업 열심히 들어요~
△우리 후배들 뽑는데 전력을 다하지구요!!
-son
그리고...
△불교학생회로 오세요

△지갑 잃어버린 분 <82, 한정원> 수위실에 맡겨놨습니다.
△역교과 새내기 33명! 모두 환영해요. 3학년한테도 밥사 달라고 하세요.
-어느 99학번의 외침
△문학이론분과 수업이랑 해영이랑 빨리 완쾌하길.
△준~ 이번 01학번 사냥에 들어갔대? 윽척 낚기를.
-성
△많이 지친 우리 잡초들, 후배들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atom
△거~ 복학생들 01새내기 멋 모를 때 채 가지 맙시다.
-01 인생은 피어만 한다 푸~욱!
△희정아: 이만가서도 항상 너의 밝은 모습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쓰레기들
△태우야, 신방과더러. 나중에 보자.
-신방00
△사회복지학부01 선영아! 까페에서 내 글 봤지? 연락해 밥 사줄게.
-여고선배가
△지연언니 휴학하지 않고 학교 같이 다니게 돼서 정말 좋다. 내가 이번 주 중으로 정치학개론 가져다 줄게. 미안하고 고마워~
-은영이가
△D군아. 제발 '주식' 좀 해다주라. 독축하기도 귀찮다.
-H
△나리아. 수업시간에 봐서 반갑다. 친하게 지내자. 연락도 하고.
△혜진! 밥 한번 사라.
△사회학과 개강 party 참여 못해서 아쉬워요. 다음에 한번더 기회를 주시죠.

은방글

축하합니다

△112 R.O.T.C 40기 동기들아, 앞으로 1년이다. 열심히 하자. 그리고 41기 입단을 축하한다. 멋진 후보생이 되자.
-40기
△이소영~ 생일이제? 선물은 없다... ^^
-정's
△정양~ 드디어 인간된 거 축하해!! 인간답게 살아라!!
-HH
△용우형~ 학교에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여운 후배 울림
△윤미야! 이번에 탈수승하지? 정말루 축하한다. 앞으로는 어엿하고 당당한 너의 모습으로 힘차게 살길바래~
△은숙아, 남자친구 사귀 거 축하해. 100일 1000일까지 오랫동안 행복하길 바랄게.
수고하셨습니다
△42기 동기들아... 수고가 많다. 내가 빨리 라이선스 따길 빌어줘.
-NAB
△나의 친구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부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다.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올해는 꼭 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외로운 소녀
△Time 집무님을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제

가 타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18기선두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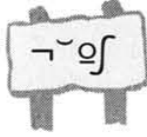
열심히합시다

△사체과 새내기 기원군아 학교생활 열심히 해라.
-형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미식축구부원 여러분 1부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모두 화이팅
-이장
△형님이 힘!! 열심히 공부하시구요. 이왕 복학하신 김에 과TOP하세요
-후배 정
△중어중문학과 여러분! 열심히 삼시다.
△우리 이제 도망(?) 3학년이 되었어. 현영, 근혜, 은숙, 승민아~그냥 도서관에서 뼈를 묻자꾸나. 히히^^ 놀기도 놀아야지?
△호텔경영학과 3학년 여러분,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까? 얼굴 좀 보고 삼시다.
글구 우리 과대는 도대체 누구야? 공금! 또 공금!!
△정남아!!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지? 착실히 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면허를 따서 영아 드라이브 시켜도~~
-응원녀
△나야아~ 이번에 재 수강한다고 열심히 하는구나... 꼭 높은 학점 받길 바래.
그리고 얼굴보기 힘들구나...
-bbang
알립니다
△고전음악감상실 신입요원을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2층 고전음악감상실 DJ박스로

오세요~
△대지원 봉사단 3월13일 정기총회 및 개강파티 한다. 예비역들 전원 참석바람
-대방
△한창 동아리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보고 동아리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현정~ 개강하고 한번도 못 봤네... 빨리 시간 내서 보자구나!!
△할매야... 통장 한번 확인해보고 밥 차라~
-귀염둥
△우리 귀염둥이 황정희! 오빠랑 다시 재회하니 좋나? 다시 시작하는 3학년 알차게 보내고 오빠랑도 잘 지내
-이뿌니 친구
△오빠 나만 바라봐!!!
-삼질
△우리 모두 다같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학기를 시작합시다!!^^
△은주야!! 남자친구 사귀어서 좋겠다. 부러워~~ 앞으로 바람피지 말고 한 명에 게만 잘하는 그런 은주가 되길 바래.
-널 지키는 친구가
△우리 41기 동기들아,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자. 서로 힘든 거 아니까 짐이 되지 않고 마음속 걱정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 말이야.
-41
△경영98학번 휴학생 배기원입니다. 학교에 들러보니 너무나도 좋군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기숙사 자치위원회 외부감사



유명무실한 외부감사보다
자치위원회내에
감사부를 두는것이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된 감사기구로
투명성 확보되는
자치위원회 건설하자

최근 경주캠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내 독립된 부속기관인 금장생활관의 자치위원회 감사기구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회비는 학생들이 학기마다 1만원씩 내는 돈을 말한다. 자치회비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일까? 이것을 아는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금장생활관은 최근 많은 발전을 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학생들이 지불한 자치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금장생활관 자치위원회 감사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도 타 단대만큼이나 많고 학교 부속기관의 학생회라는 명분 아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성격과 같은 곳이다.

물론 금장생활관 관리팀에서 자체 감사

로 투명하게 운영한다지만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1대부터 2대까지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증빙서류들을 수집해 감사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세칙들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므로 외부 감사 기관 도입에 대한 타 학교의 현황과 총대의원회 활동 등을 표본으로 삼아 자치위원회에 알맞은 회칙들을 정해 현 금장생활관 자체 감사를 배제한 외부 감사기구 도입으로 학생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독립된 감사 기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는 금장생활관 자치위원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 시대에 걸맞은 행동과 남보다 먼저 움직이고 다시 일어서는 성실한 금장생활관 자치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종욱 (관내대 호텔경영3)

금장생활관 자치위원회의 외부감사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금장생활관 자치위원회의 발자취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숙사 남학생들은 1981년 10월 31일에, 여학생들은 1990년 9월에 준공된 후,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1982년 3월 당시 현재 자치위원회를 사생운영위원회로 구성하게 하여 사생들의 대표적인 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했다.

일반적인 사회 제반 조직은 집행 부서와 감사 부서를 이원화하는 것이 통례이다. 자치위원회의 회칙이 2000년도 입안되어 현행 회칙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감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학생회를 보더라도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있어 제반 사업 집행과 감사 업무를 하고 있다. 자치회비의 투명성 문제는

생활관생을 지원하는 관리팀에서 자치위원회와 별개로 감독·결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감사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독자적으로 자치위원회내에 회칙을 개정하여 감사부를 별도로 두는 내부감사 제도를 만들어 분기별, 사업별, 연도별로 결산공고를 해 관생에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소규모 자치위원회를 감사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도입하는 것은 감사조직의 운영과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쉽지가 않다.

요컨대, 관생들이 납부한 자치회비의 투명성 확보와 관생들의 대표기구로서의 제반감사는 분명 필요하지만 외부 감사로 이원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치위원회 회칙을 개정해서라도 내부감사(감사부)를 두는 것이 관생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명수 (금장생활관 관리팀)

열린글터

을 했고,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성을 쏟았을 뿐이다.

그러나 막상 취업문제가 다가오자 스스로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는지를 깨달았다. 그제서야 이미 때가 늦은 것은 아닌가하고 절망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작은 일들과 행운의 도움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세상이 내게 길을 보여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과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 처음에 가졌던 꿈을 버리지 말자는 소망도 생겼다.

이제는 다시 나를 세워줄 것이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조금의 무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고하고 깨닫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세상의 첫걸음을 올바르게 원하는 대로 내달릴 수는 없다.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꿈은 산 속 오솔길에서 찾을 수 있는 반딧불이와 같이 예기 못한 작은 만남에서도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주저앉게 만들더라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생은 예측불허하다.

김형철 (경영대 경제졸)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특별기고 **8학번 경제학과 졸업생 취업수기**

믿음과 소망, 새로운 길의 무기되어

취업의 문턱에서 희망 버리지 않았던 나날들

나는 1993년 본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2001년 졸업생이다.

대학에 입학한 후, 서울의 낮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과 생활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던 중, 지친 나 스스로를 추스르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1년간 휴학을 했다.

휴학하면서 어느 정도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복학한 뒤 자취방은 전공책과 영어책, 신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2학기가 시작된 후 시작은 그러저러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1월이 되면서 나는 다시 꿈도 희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푸념 섞인 걱정이 매일 나오기 시작했다.

취업에 대한 걱정들로 수많은 원서를 쓰는데 온힘을 쏟다보니 하루 4시간 이상은 잘 수가 없었다. 아마도 나는 그때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이 시기에 더욱 나를 괴롭혔던 것은 차가워지는 날씨와 함께 다른 친구들의 취업 소식,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취방과 압박한 앞날이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도서관과 강의실, 길거리, 취업지원실, 면접장을 바쁘게 뛰어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서울하늘 아래 내 발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지방에 있는 00은행이다. 운 좋게 인사원서를 구한 후 합격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루어졌다.

이곳에 원서를 냈을 당시 나는 졸공 무기력함에 시달려 왔던 터라 원서 접수조차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원서 접수를 포기하려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형,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내게 보여준 기려는 내가 발걸음을 과감히 옮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접수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대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연과 행운은 이상한 곳에서 오는 법인가 보다. 서류전형, 필기 논술과 적성검사를 모두 통과했다.

지난 휴학 기간 동안 토론 위주로 학습했던 영어와 꾸준히 구독한 신문, 잡지 그리고 비록 좋은 학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만든 각종 논문 자료집과 원론 파일은 긴박한 순간에 영화필름처럼 내 머리를 스쳐갔다.

평소에 토론할 때는 막연한 주장이나 지식검달이 아닌 내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가 합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나는 A+를 맞기 위해 밤을 새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그저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참고자료를 찾았을 뿐이다. 다만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 것이었다면 신문을 읽을 때 꼼꼼히 읽어 한 언론사의 신문을 읽는데 보통 4시간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 때 나는 취직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병무청 주요제도 개선 내용 안내

Http://www.mma.go.kr 공보담당관실 Tel. 02)820-4701~3 042)481-2701~3

입영일자과 입영부대 본인 선택 시스템 시행 안내

징병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소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2001 신시스템에 의한 징병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병무청이 이번에는 입영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종래의 부과 방식에서 탈피, 의무자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입영일자과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의 인원 배정시기를 병역지정 연구기관의 연구요원 채용시기보다 앞당겨 조정하는 등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을 내놓았다.

입영일자과 입영부대, 본인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앞으로 재학도중 군에 입영하기 위해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하던 종래의 의무 부과 방식에서 탈피,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제1단계로 재학생 입영원 출원을 위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5월 1일 이후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열차에매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별로 입영이 가능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본인이 입영을 희망하는 월을 지정하면 징병검사시에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에 의해 분류된 적성별로 입영이 가능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현황이 나타나며,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적성은 14개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중 군에서 기술양성을 위해 필요한 중장비 운전과 정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군악, 전산 등 7개 기술적성을 포함한 14개 적성을 가진 사람은 육군훈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7개 기술적성을 제외한 적성을 가진 사람은 육군훈련소, 보충대, 후방사단 등 모든 입영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성분류체계개선

이와 함께 현재 2원화 되어 있는 병무청의 적성 분류제도와 육군의 특기분류제도의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병무청은 14개로 되어 있는 적성분류를 육군훈련소의 군사특기 분류와 연계하여 11개 적성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으로는 현재 전자, 통신, 전산(3개)로 되어 있는 적성을 전자·통신·전산(1개)으로 유사분야는 통합하고, 군에서 필요한 사회기능분야중장비운전·정비, 차량운전·정비(2개) →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운전, 차량운전(3개)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병무청이 분류한 11개 적성분류를 기초로 군 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237개의 세분화된 군사 특기를 부여하게 된다.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시기 10월로 앞당겨

매년 12월초로 되어 있는 각 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의 인원 배정 시기가 올해부터는 10월로 변경 실시된다. 이에 따라 매년 7월말까지 접수해오

던 신규 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과 다음해 소요 인원 신청은 6월부터 접수하기로 했다.

병무청이 전문연구요원의 인원배정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은 지난해 인원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문연구요원을 모집한 업체들이 실제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과정에서는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의무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의 인원배정을 미리 확정해 줌으로써 이같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따른 의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의 인원배정 시기가 앞당겨 조정되면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희망하는 의무자들의 편입 증진과 지정업체의 우수연구인력의 조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자원의 일부를 국가기술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특히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자연계 석·박사 학위 취득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은 급증하여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에 따라 지난해 병무청은 10년이상 지정된 연구기관을 배정에 제외하고 연구기관별 배정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국외이주자, 국내에서 영리활동 제한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국외에서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 등을 불문하고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이주자로 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부과를 하지 않았다. 특히, 국외이주자 중에서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는 모국학생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졸업한 후 1년 이내에내 출국하면 병역의무부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제도를 악용해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학칙만 보유하고 실질적으로는 영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성실하게 병역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병역의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시행령 개정되는 3월 27일(예정일) 이후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여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때에는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병무청 훈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달하나 천강에 지역문화와 주인의식



이 임 수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980년대 초, 군사정권 시절에 경주캠퍼스의 출판물인 '시립(始林) 지 편집 중 '서울공화국'이라는 문화비판으로 인한 필화사건이 있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서울중심의 정치와 문화, 권력에 대한 광범한 비판일 뿐인데 말이다. 이십년이 지난 지금도 언론의 자유는 많이 신장되었지만 서울중심의 한국사회 현상은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정치와 권력과 자본이 모두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좋은 대학이란 이름 아래 모든 젊은이들이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미명(美名) 아래 모든 것을 수리적 통계자료만을 기준으로 하는 사고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의 신장(伸張)과 다양성의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물질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인식으로 문화적 유행만 낚았을 뿐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

모든 학교들은 특성을 갖지 못한 채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학회 또한 중앙을 근거로 한 양적인 기준에만 맞춘 평가로 지방화하는 독자적인 영역의 학문발전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세금을 투자하여 지방 문화 발전에만 명목으로 행해지는 문화행사들도 서울의 기획팀들에 의한 일회적 이벤트로 그쳐, 지역민들의 장기적인 문화의식 함양이나 자주적인 문화축제로의 타진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본교 경주캠퍼스 또한 경주를 포함한 남동해권 제1의 대학으로서 지방문화의 축으로 그 중심지리에 서지 못하고 있음은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 경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경마장 건설 백지화' 문제도 애초 정치인들과 중앙, 지방관료들 개인의 이해득실을 위한 발상에서부터 그 책임이 있다. 장기적으로 옹지도 않은 무리한 정책들을 공표하여 순진한 지역민들에게 물질적 허영심만 부풀려 놓았다가 이제 그 기대에 대한 허탈감만을 준 그들은 대부분 중앙에 있는, 권력을 가진, 비문화인, 비양심가들이다.

이제 시골에 앉아서도 세계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찾아 왔다. 정보의 문제에서만은 지방의 단점을 극복할 좋은 기회인지도 모른다. 지역의 문화는 지역인들의 머리와 손과 돈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늦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한다. 동국인들부터 지역문화에 대한 의식(mind)을 갖고 지역문화의 주축이 되어 참여의식과 적극적인 주인의식으로 바로 서야 할 때다.

'No Cut' 전, 금기를 Cut하다!

사회의 허위·가식을 비판 ... 성과 정치의 담론 수면위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는 안 된다' 소독의 파벌 현장에서 도망치던 뿔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결국 돌아보고야 만다. 금지된 일에 대한 불복종의 대가로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다.

금서, 18세 미만 관람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금기사항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지금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장발과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 통금시간 등은 70년대 우리에게 섰었던 사회적 금기사항들이었다.

이처럼 '금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가 규정하는 어떤 규범이나 법으로 나타난다. 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도 되는 것의 경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망설임이 마려운다. 그것은 금기가 사람들에게 예뻐보이는 '선악과'처럼 펼쳐버릴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봤을 금기에 대한 도전이 지난달 28일부터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미발표작과 훼손으로 인해 다시 제작된 작품들, 또 금기에 제약받지 않고 작업된 신작을 모아 기획한 'No Cut' 전이 바로 그것이다. 시작부터 경찰서 직원들의 잇따른 방문과 그림 속 인물들의 초상권 문제로 화제를 모았던 이번 전시는 성과 정치라는 두 가지 화두를 제시한다.

성을 주제로 한 작품은 원조교제에 대한 폐해를 여고생의 치부로 표현한 '핑크'를 포함한 총 8점이다. 또한 안성금 화백의 '아! 한반도'는 김일성 부자 사진을 넣은 인공기와 성조기 안에 태극기

가 합성된 기를 나란히 걸어 전시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목에 칼을 갖다 댄 박봉환 화백의 '칼을 받아랏' 역시 정치와 권력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전시장을 둘러본 관람객 신기수 씨(36)는 "무삭제 전시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보고 나니 심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은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문제를 표현한 '아! 한반도'의 경우 인공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에 위반되어 전시 자체가 불가능한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 큐레이터 이희정 씨는 "전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전시 중이며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파카소는 '예술의 힘은 우리가 금기시하는 것들을 파기함으로써 이뤄진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성적이든 정치적 이든 간에 검열·삭제의 잣대가 작

가의 창작 욕구 자체를 억압하고 거세해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No Cut' 전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창작의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탈 수습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에서

육빛 품은 고고한 청자가 되는 날까지 정기자여 뛰는 가슴으로 달려가라!

단단하고 빛 좋은 도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빛기가 끝나고 잘 말린 뒤 조심스럽게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를 거쳐야 한다. 초벌구이는 유약을 바르기 전 낮은 온도에서 아주 서서히 구워 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도자기는 초벌구이 과정에서 열조절이 잘못되거나 조금만 서두르면 한순간 깨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초벌구이가 끝난 후 천천히 식힌 도자기는 선별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신문사 안에서 지내온 6개월 동안의 수습 생활도 그러했다. 조금 더 완벽하고 당당한 정자기의 모습으로 일어서기 위해 긴 시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실패 없는 완성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자신감과 배짱으로 처음 발을 디딘 신문사. 발 빠르게 움직이고 독자들에게 신선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냉혹하리 만큼 달랐다. 매일 이어지는 회의와 압박한 기사 마감 시간 앞에 차츰 무기력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그저 짜여진 틀 속에 갇혀 내게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다. 작은 실수 하나



에도 쉽게 주눅들었고, 항상 앞서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깨지고 싶지 않았다. 미완성품으로 버려지기 싫었다. 어느새 '기자'라는 이름에 집착이 생겼다.

지금 나는 그 초벌구이를 마친 도자기와 같다. 고고한 육빛을 품은 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유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가슴 뛰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나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하고 당당한 정기자로서 끊임없이 뛰고 고민하면서 말이다.

나는 6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뛰었다.

이제 뛰는 가슴으로 다시 한번 출발선상에서 스타트를 준비한다.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자문소식

인디 영화제

서울캠 법대 소모임 '인디'가 최근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제를 연다.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일본영화를 중심으로 총 6편을 이틀에 걸쳐 상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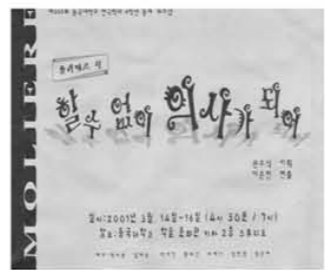
12일(오늘)		13일	
11시	여우령	11시	도교밖음
1시 20분	주바쿠	1시 40분	올빼미의 성
4시	키드	4시 40분	여우령
6시 35분	한니발	6시 40분	한니발

손짓사랑회 공연



서울캠 수화 동아리 손짓사랑회가 새학기를 맞아 수화 공연을 준비한다. 동아리 홍보와 청각장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수화기초반 모임을 취지로, 총 6곡의 수화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공연과 함께 진행될 수화교양강좌에 관한 찬·반 투표로 학생들의 수화학습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오는 14일 12시, 15일 12시 30분에, 불상 앞에서. 문의 016-664-3102(김영미)

할 수 없이 의사가 되어



서울캠 연극학과는 4학년 학생들의 동계 워크숍 작품 '할 수 없이 의사가 되어'를 공연한다. 물리에르의 원작을 토대로 한 이번 연극은 '병원사택 경사'와 'good doctor stadium'에 이은 신입생 환영 공연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4시 30분/7시,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011-404-6470(이유진)

민음협, 문화유산 홍보 CD-ROM제작

한국민족음악인협회회는 행정자치부의 보조를 받아 '유네스코 등록 한국의 문화유산 홍보 ART CD-ROM'을 제작했다. 종묘, 창덕궁,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적인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아 낸 이 CD-ROM은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영문판도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손쉽게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교육용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 CD-ROM은 한국민족음악인협회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364-8031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 영화시장을 그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영화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다면 우리 삶을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영화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스크린쿼터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제 사수에 힘을 실어주시, 우리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매체비평

Q&A

어글리 우먼

"남성이 즐기고 여성은 순응하는 사회모순, 미인대회는 가라!"



사회가 규정하는 아름다움은 '로라'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만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외모의 아름다움을 더 고려하는 게 세상의 모순이다. 특히 여성에게 그렇다. 그런 모순된 세상의 끝없는 행태를 드러내고 그 뒷전에서 여성몸을 거래하는 인간 상품 자본주의의 오류를 공격하는 영화도 당연히 나올 만하다.

사회적 압박으로 모아진다. 2010년 새해 전야, 양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을 추적하는데서 시작된다. 이야기를 미궁에 빠진 연쇄살인극으로 연결된다. 사건을 푸는 유일한 실마리는 살해당한 이들이 과거 미인대회 수상자라는 공통점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과거 미인대회 우승자인 '로라'의 감춰진 과거를 파헤치는 아리바행사의 추적이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활기를 띤다.

대한 것이란 생각이 갈수록 없어진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도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미인대회 사업과 아름다움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기본적인 도덕조차 포기해 악마적 미인으로 탄생한 이들, 그러면 서로 희생양이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온다.

시작될 수 있다는 것들. 외모란 태생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모강박증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성형외과적 조작과 의술에 의지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지만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의 추함에 대한 분노는 어떤 과학적 기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로라가 그 대표적인 희생자이다.

유지나 영화평론가/ 영화영상학과 교수

돌이 모이면 '서바이벌'은 시작된다!

약육강식의 법칙 ... 생존위해 '자아'를 잃을까 염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대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대사는 단순히 선택이라는 명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즉 생존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목숨을 건 삶과 죽음의 기로, 혹은 사회 속 자기 위치의 존폐 여부까지도.

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서바이벌 게임에 관한 큰 관심이 일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광석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닌 극한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형태의 게임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 전략을 잘 펼치는 것과 더불어 자기가 살아 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서바이벌을 즐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바이벌의 생존경쟁을 별 거부감없이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서바이벌 게임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각 방송사마다 '서바이벌'을 앞세운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그 시청률 또한 인기를 유지해 왔다. '서바이벌 미팅'에서부터 '서바이벌 토크쇼'까지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한 행동과 연행을 마다하지 않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방영했다.

서바이벌에 구속되다! 물론 이러한 공급에 따른 수요가, 앞서의 우려와는 달리 단순히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취미생활로 시작하다가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존'의 이름으로

어느새 '생존'이라는 명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신 안되는 하나의 목표이자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스스로를 체질적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남보다 앞서가기를 중용하며, 생존을 위해 경쟁은 물론 반칙까지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근래에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타인의 모습을 즐기다가 지 한다.

이제는 사회의 출세경쟁이나 대학의 학점경쟁과도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직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급의 자리 수에 사람이 맞추어지다 보니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당연시 된다. 또 학업능력에 따라 학점을 평가하는 절대평가 아닌 상대적인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상대평가이다 보니, 내가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남보다 잘해야 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경쟁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TV뿐만 아니라 최근 개봉된 '버터칼 리미트'나 '캐스트 어웨이' 등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역시 관객의 발길을 끌지 않았다. 출연계도 이에 뒤질세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과학상식을 담은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와 남극항단 탐험가의 실화를 엮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위기 순간에 대한 대처법을 제시한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등 '서바이벌'과 관련된 서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에 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동물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만을 위한 생존전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생존전략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표은영 기자 pik20@dongguk.edu

매체 속 서바이벌 세계로

영화 캐스트 어웨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남겨진 주인공은 4년 후 탈출하면서 '난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은 인간을 강인하게 만들어 준다.

드러낼 때 비로소 자기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문명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겪는 문명인의 모험 이야기가 문명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도 역시 취업난과 구조조정이라는 위기 모순 무인도에서 사회적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영화 속의 무인도나 사회 속의 무인도나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최근 회원 2만명을 돌파한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건파워' 내 'DASH'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박용근(24) 씨를 만나 서바이벌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같다. 군장 매니아들의 경우는 게임 중에서도 극도의 리얼리티를 추구하곤 한다. 서바이벌 게임의 유래가 미국 퇴역 군인들이 군 생활의 향수를 잊지 못해 시작한 전쟁 시나리오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하면 놀이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TV 서바이벌 미팅



사람은 과감히 도전하고 정취하는 사람이다. 결국 끝까지 싸워 살아남는 자만이 사람을 거머쥐게 된다. 이것은 주말 저녁 한 오락프로그램에서 선보이고 있는 '서바이벌 미팅'의 진행 방식이다. 모든 출연자는 시종일관 사냥이라는 값비싼 포박지를 두른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출연자를 짓누르면서까지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에만 열중한 출연자들의 모습은 자칫 경쟁살리로 물들어 있는 사회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서바이벌 미팅은 공동체 삶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한 사회문제를 약화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출연자를 '원파'로 몰아 탈락시키는 방식도 모자라 소금을 뿌리거나 매를 때리는 가학적인 행위는 인격모독에 가깝다.

- 게임을 떠나서 서바이벌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 서바이벌은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알고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요즘 마스크업이 서바이벌을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서바이벌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바이벌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타인의 생명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 앞으로 문화 전반에 대한 서바이벌의 영향력을 전망한다면. = 얼마 전부터 제2의 IMF가 온다는 소리와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게임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투영해서 심리적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다.

게임 레인보우 시스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나는 서바이벌은 참혹함뿐이다. 결국 무기와 아이템을 사용하며 상대를 죽이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남는 길이다.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차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다. 비록 가상의 현실에서 유도하는 본능적 욕구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 그것은 명백한 범죄일 때문이다.

- 서바이벌 게임이 현실과 놀이중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가. =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모호한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것

사회에 위기가 닥칠수록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강해질 것이므로 서바이벌이 더욱 대중화·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미디어리

新 인민재판

▲98년 김대중 정권 초기시절,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이었던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발언이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에 의해 '빨갱이'로 치부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 교수의 6·25전쟁에 대한 논문에서 문장의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역사적'을 '위대한'으로 바꿔, '결국 김일성은 전면전이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라고 보도해 6·25와 김일성 연관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2년전 이석

현 국회의원의 명함 일부분에 기재된 '남조선 국회의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진위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표면에 나타난 단어만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버려 이 국회의원은 자진출당이라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에서 '우선 정쟁범죄에 대해 잘잘못이 가려져야 하고, 사과는 다음 순서'라고 발언했다. 이에 보수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또 다시 거두절미하고 '사과를 받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 사과 불응'이라고 발언했다고 매도하고 황교수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직을 사퇴하게 만들었다.

의 주장에 대해 학문적 토론을 통한 검증작업보다는 '인민재판'에 열중함으로써 진보적 학자들을 매장시켰다.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쫓고, 세력을 키워나가는 극우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전략이 말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에 많은 시민 단체와 언론들은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대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가 되고 있지만 왜 시대착오적인 현상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보수언론과 수구 세력들은 많은 폭주각시를 만들어왔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이라는, 사상검증이라는 구실로 각 시대마다 이용해 왔던 것이다. 벌써 많은 단체에서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움직임은 경제위기와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박현호 편집부장 blue@mail.dongguk.ac.kr

동아리 탐방 경주캠 '영상'

세상에 숨겨진 빛과 어둠을 찾아서

3년간 경험 쌓아 사진작가되기도

출입이 통제되는 비밀스러운 안실처럼 경주캠 사진동아리 '영상'은 특유의 신비함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사진에 매료된 30여명의 회원들이 사진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21년이란 오랜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늘 한 컷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잡기 위해 방중 원정활동과 야외촬영을 하며 전국을 누빈다. 지난 2월 동계원정을 다녀온 서해 변산반도와 평강마을, 일출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처연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일몰을 바라볼 때는 셔터를 누르기 힘들만큼 잠입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진촬영만이 전부는 아니다. 동아리방 한켠에 자리한 비밀스런 암실, 그곳에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스스로 현상하고 인화하는 또 하나의 매력이 숨겨져 있다. 아무리 잘 찍은 사진이라 해도 밝는 과정까지 정성을 쏟지 않으면 활짝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매순간 긴장을 늦



학생회관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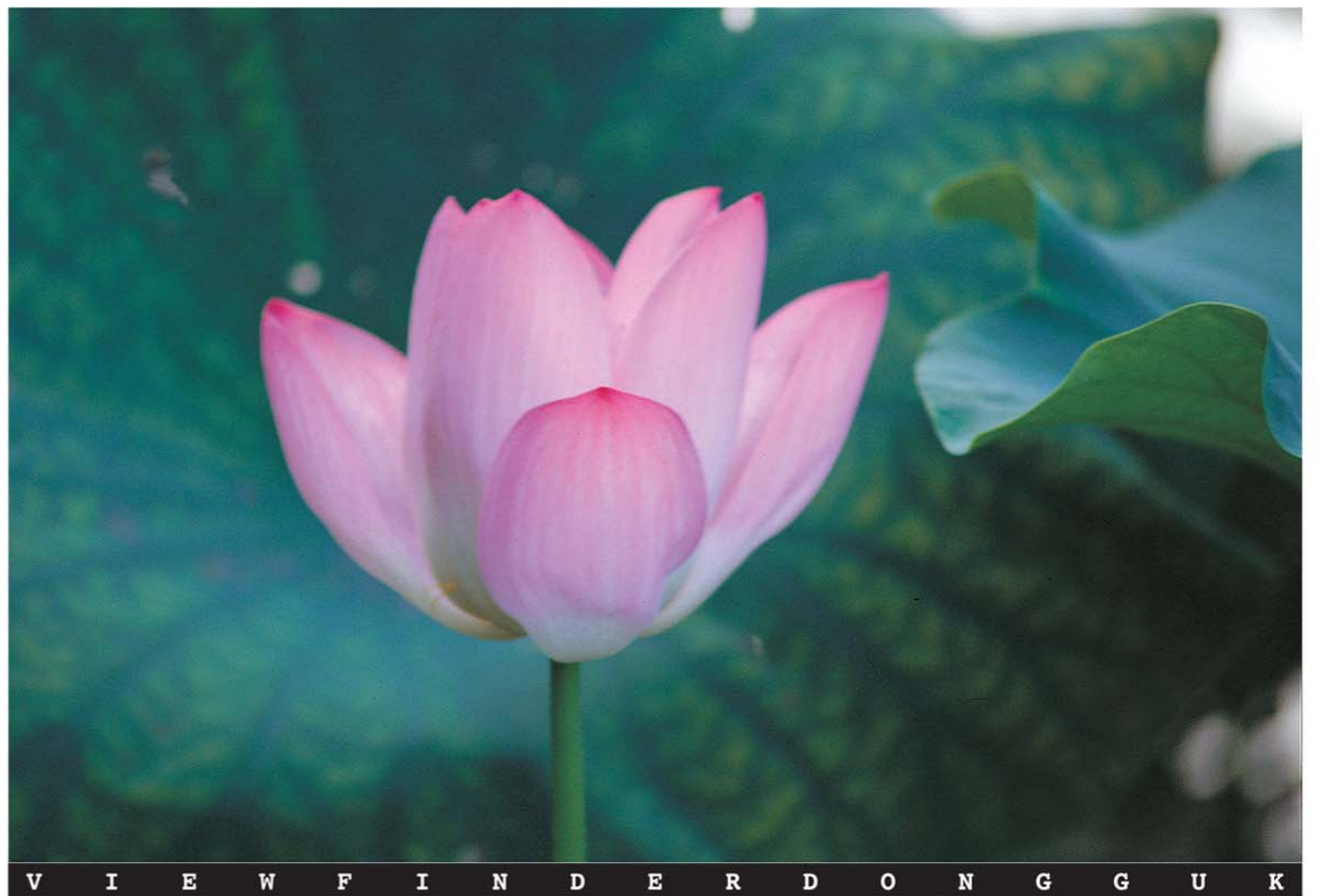
5월 학교축제 기간에 맞춰 축제 사진전과 한 해동안 찍은 작품을 선별 전시하는 11월 정기 전시회를 가진다.

그러나 김진용(자연대2) 회장은 "우리만 보고 있거는 너무 가까운 작품들이 많은데도 감상하러 오는 학생들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는 동아리 홍보를 위해 오는 4월경 '영상 모델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바로 일반학생들을 모델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상의 숨겨진 빛과 어둠을 찾아 밝혀내는 카메라는 한 장의 사진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힘을 가졌다. 이러한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셔터소리 속에 깊은 메시지를 담은 사진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남정 기자 hanaby37@mail.dongguk.ac.kr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기원(祈願) ... '한숨이 연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심리만큼의 조화가 있어야 할까? 모든 동국인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봄, 새학기가 되길 간절히 빌어본다. 촬영=송광수 동문

책소식

부드러운 파시즘



도전적인 글쓰기로 유명한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의 7인이 모여 펼친 11번째 시·사인물사전.

파시즘의 대표격인 무솔리니, 히틀러에 대한 심도 깊은 기록과 함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을 지배하는 '부드러운 파시즘'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준만 공저/ 인물과 사상사/ 정가 9천원.

선(禪) 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불교학에서 별다른 연구없이 써왔던 '선'에 대한 개념을 팔만대장경과 논서를 근거로 정확히 제시한다.

'선의 정신이론'과 '수행론'으로 나누어 선수행의 필요와 단위를 설명하고,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해 설명한다.

변상섭 지음/ 컬처라인/ 정가 1만2천원.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



19살에 출간한 저자가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을 때 만난 다양한 외국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와 다름없이 고뇌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삶의 여율을 건너고 있는 미국 불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세등스님 지음/ 문학동네/ 정가 7천원.

눈 내리는 마을



유년시절의 체험부터 현재까지,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깊은 상처와 '한'의 정서를 시로 엮었다.

'허울을 다 털어 버리고 남을 것만 남겼다'는 저자의 말처럼 작가가 지금까지 발표한 시를 추리고 최근 작품을 보태어 발표한 77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양 지음/ 모이드림/ 정가 6천원

일본현대문학사 시리즈



일본현대문학사의 전모를 꼼꼼하게 기술한다. '메이지', '다이쇼', '쇼와' 문학사의 3권으로 나누어 있으며, 일본 문학인들의 고인과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본 메이지 문학사: 나카무라 미쓰오 지음/ 정가 1만2천원. 일본 다이쇼 문학사: 우시이 요시미 지음/ 정가 1만원. 일본 쇼와 문학사: 히라노 겐 지음/ 정가 1만4천원/ 고재서·김환기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공연소식

금이야 사랑해

극단 창작무대 우람이 지난 92년 미군의 윤금씨에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 '금이야 사랑해'를 공연한다.

주한 미군 병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 윤금씨의 이야기를 통해



주한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되풀이 된다.

다음달 29일까지. 7시 30분(화·금)/4시 30분(토)/4시(일, 공휴일)/월. 소극장 '오늘·한강·마녀'에서. 문의 782-0810

의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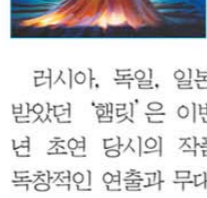


극단 학전이 '지하철 1호선', '모스키토'에 이어 3번째 뮤지컬 '의형제'를 무대에 올린다.

김민기의 번안·연출로 공연되는 '의형제'는 한국전쟁부터 유신말까지 한 쌍둥이 형제와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한다.

5월 13일까지. 7시 30분(화·금)/3시 30분·7시 30분(토)/3시·7시(일·공휴일)/월.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문의 783-8233

행릿



연희단거리패가 '행릿' 재공연을 통해 한국적 세익스피어 공연양식을 선보인다.

러시아, 독일, 일본 등을 돌며 각광을 받았던 '행릿'은 이번 귀국 무대에서 96년 초연 당시의 작품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창적인 연출과 무대구상으로 꾸며진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7시 30분(화·목)/3시·7시 30분(금·토)/3시(일)/첫날 3시 공연·월.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문의 763-1288

육두육감



2001년을 맞아 발족한 혜화동 1번지 3기 동인들이 모여 '육두육감'을 공연한다.

문예진흥원의 연극기획공연 지원작품이며 양정용의 '의자'를 시작으로 '바코드 033630779', '슈퍼맨과 타자의 사랑', '별이 쏟아진다' 등 총 여섯 작품을 2주씩 나누어 공연한다.

신진 연극인들의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을 무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7시 30분(화·금)/4시 30분·7시 30분(토·일·공휴일)/월.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에서. 문의 782-0810

사계



서울발레시어터가 제임스 전을 상임단무가로 하는 현대 발레극 '사계'를 선보인다.

바흐, 마르첼로, 비발디, 헨델의 음악을 배경으로 '봄-생명의 선', '여름-초우', '가을-바람의 노래', '겨울-기다리는 마음'까지 모든 장면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로이 토비아스의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도 함께 공연해 재미를 더한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오후 8시. LG아트센터에서. 문의 2272-2153

봄꽃 개주세요

경주 시립극단 '예림레'가 백열여섯번째 정기공연으로 '봄꽃개주세요'를 선보인다. 이만희 작, 이금수 연출의 이 작품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중년남녀의 사랑이



아기를 통해 현대인의 이중성과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특유의 무대어색과 관객을 고려한 극의 구성이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오후 7시 30분. 경주 예술극장에서. 예매처·가격·대원서점/피리비게트/영화마을, 학생 4천원/일반 8천원.

행사소식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경주시는 제 10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벚꽃을 관광상품화 하면서 시작된 이 행사는 평균 8개국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15대 이벤트 행사'로 지정되는 등 점차 국제성을 띄어

가고 있다. 종목은 5km, 10km, 하프, 풀 코스로 나뉘어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완주메달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오는 15일까지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접수처·참가비- 경주시체육회, 2관원(단 5km는 1만원). 문의 (054) 771-6525

술과 떡 잔치



경주시는 제 4회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1'을 개최한다. 한국 주요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중국의 전통 술과 떡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각 국(지역)의 술과 떡 시음·시식회와 관람객 참여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등 연일 유익한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문의 (054) 779-6386

< 제공 : 손짓사랑회 >

손짓으로 전하는 사랑

첫번째 "입학을 축하합니다."



입	학	축하합니다
손가락을 모은 오른손을 왼손바닥 가운데에 올려놓고 앞으로 내린다	두 손을 펴서 양 어깨 위로 올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전후로 흔든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모았다가 펼치면서 위로 올린다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비지락수제비(1300)
화	닭고치구이(1500) 부대찌개(1500)
수	돈육볶고추파(1500)
목	떡갈비(1500) 진탕밥(1500)
금	살랑탕(1500)
	짜장밥(1300) 계육불고기백반(1500)
	사골우거지국(1500)
	치킨샐러드(1500) 김치찌개(1500)
	민두국(1300)
	계육강정(1500) 김치소스볶음밥(15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알갈이백반(1500) 대구지리(3300)
화	계육두부찌개(1300) 두부김치(3000)
수	닭곰탕(1500) 아찌전골(3300)
목	돈간짜기(1500) 상록양정식(3800)
금	장터국밥(1500) 육도장국(3000)
	미트볼탕수육(1500) 아구찜(3500)
	민장찌개백반(1500) 사골우거지탕(3300)
	치킨볶음밥(1500) 돈나갈비구이(3500)
	햄숙이찌개(1500) 곰창전골(3300)
	오징어소면무침(1500) 계장백반(3500)

(단위: 원)

극예술연구회 단원 모집

안녕하세요!
이와번 새내기 여러분!
저의 극예술연구회는
당신을 찾는 동아리에요.
무대위 조망에 비추어진
저희의 모습을 보고싶지 않으세요?
그 모습엔 여러분의
맘과 노력,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위에서 저희의 틀을 깬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지 않나요?
말게만 느껴지던 연극이 여러분 곁으로
동대 극예술연구회와 함께 다가옵니다.
학관 5층으로 발리 뛰어 올라주세요~

Anime club

안녕하세요~
동국대학에서 문화 동아리 "보리문"이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리액션, 창작, 그리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원하는 동아리 회원 여러분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애니를 사랑하시는 O.K. 여러분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신청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신청기간: 3월 12일 ~ 3월 25일
신청처: 학생회관 5층 (8641700-2799로주세요)

아름다운 불꽃을 만드는

동국대 불교학생회

품은 인연을 만들어 갈 신입생을 기다려요...

학생회관 2층

112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나의길! 나의 미래!
자랑스런 학군단

저희 학군단(경주캠)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k.dongguk.ac.kr/~rotc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김치국(1300) 배추국(1300)
화	삼색볶음밥(1600) 탕수육(1800)
수	미역국(1300) 시금치국(1300)
목	돈가스(1500) 김치볶음밥(1600)
금	김치양파국(1300) 무채국(1300)
토	마파두부달걀(1500) 쇠고기볶음밥(1700)
일	쇠고기국(1300) 콩나물국(1300)
	참치아찌비빔밥(1500) 어묵이채달걀(1600)
	하루나눔국(1300) 동태매운탕(1300)
	양송이볶음밥(1600) 짜장달걀(1700)
	복어채국(1300)
	닭갈비볶음밥(1700) 장터국밥(1300)
	짬뽕국(1300)
	카레볶음밥(1600) 장터국밥(1300)

(단위: 원)